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姜三慧*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
및 제작 시기 검토 |
| II. 『오대산사적』과 중대 사자암 중창 기록 | V. 맺음말 |
| III.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 자료와 도상 특징 | |

요약

본 논문은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논고로, 사자암과 적멸보궁 관계 및 통일신라 이래 오대산 불교의 중요한 흐름과 여말선초 불상 양식 등을 폭넓게 살펴 제작 주체 및 배경, 제작 시기 등의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통일신라 705년(성덕왕4) 진여원이 창건되고, 50년 후 보질도(보천)태자의 유훈으로 자신의 암자를 화장사(화엄사)로 개창하여 비로자나삼존과 대장경을 봉안하고, 하월으로 문수갑사를 배치하여 都會所로 삼게 하면서 오대산 불교의 중심은 中臺가 되었다. 여말선초 나옹이 오대산에서 수행한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해 오대산 불교는 또 한 번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조선 초 권근의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에는 나옹의 문도인 覺雲雪嶽의 건의로 태상왕 이성계가 1400년(정종2) 중대 사자암을 중창하고 낙성식에 참여한 내용이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상과 양식을 분석하여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이 1400년 사자암이 중창되던 시기와 부합됨을 밝혔다. 사자암 상은 14세기 후반 고려 불상 양식과 공유되는 표현 요소가 많은 반면 15세기 중후반 조선 불상에서 대거 유행하는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1400년 경 제작된 불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중대 사자암 상은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전개되는 조각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오대산 신앙의 실체와 공간성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자암 상에서 발견된 1456년(세조2) 복장 다라니 연구를 통해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 세워진 세존진신탑묘비 연대를 조선 15세기 중후반으로 시기를 비정해 볼 수 있었다. 비석에 새겨진 「불정심인」은 시각적으로 정골을 의미하며,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복장 다라니의 「불정심인」(1456)과 유사하고 비신의 뒷면에는 탑인이 새겨져 있어, 이 무렵 불인과 더불어 탑인이 함께 등장하는 경향에 따라 15세기 중후반으로 제작 시기를 비정할 수 있었다.

[주요단어] 비로자나, 오대산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 진여원, 상원사, 이성계, 세조, 나옹, 보천, 수구다라니, 불인, 불정심인, 부적, 『오대산사적』

* 국립경주박물관

1) 이 논문은 2023년 9월 16일 월정사성보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I. 머리말

오대산 中臺 獅子庵과 寂滅寶宮은 慈藏 이후 신라 중대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오대산 불교를 대표하는 곳이자, 오대산 문수신앙의 중심되는 곳이었다. 오대산은 중대신라기 寶泉(寶叱徒)과 孝明태자가 수행하면서 화엄신앙을 공고히 하였으며, 효명태자(성덕왕)가 왕이 된 후 705년(성덕왕4) 眞如院을 개창했다. 고려 말~조선 초에는 왕사 懶翁이 오대산에서 수행하면서 그의 문도들이 머물렀으며, 이후 나옹의 문도인 覺雲雪嶽의 건의로 1400년(정종2) 태상왕이 된 이성계가 사자암을 중창하고, 이어 세조가 1466년(세조12) 사자암과 보궁을 참배하는 등 대대로 국가의 補裨 사찰이었다

이 논고에서 살펴볼 중대 사자암에 봉안되었던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높이 38cm의 아담한 크기로 현재 월정사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동안 조선 후기 불상으로 간주되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중수발원문(1894), 개금발원문(1908)과 함께 1456년(세조2)에 판각된 다라니 1매가 발견되어 조선 전기 불상으로 올려보고 있는 추세다. 양식적으로도 불상의 낮은 무릎 높이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모습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과는 구별되며, 가슴에 내의(승각기)를 묶은 띠매듭은 16세기 이후 불상에서는 거의 사라지므로 16세기 이전 불상일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權近(1352~1409)의 「五臺山獅子庵重創記」에는 태상왕 이성계가 사자암이 빈터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工匠을 보내 건물 두 채를 짓게 한 기록이 전한다. 그해 11월 이성계는 친히 낙성식에 行幸한 후 권근에게 기문을 쓰게 하는데, 기문에는 세 칸 건물은 부처를 安置할 법당과 僧房으로, 아래 두 칸 건물은 문간과 洗閣으로 건물을 새로 세웠다고 전한다. 이 기록으로 보아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은 1400년 당시 중창한 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하였을 불상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또한 불상에서 1456년 인출된 복장 다라니의 존재로 인해 사자암 상은 15세기 중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 두 시기에 주목하여 관련 기록과 양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작 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II. 『오대산사적』과 중대 사자암 중창 기록

중대 사자암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적멸보궁을 관리하고 禮佛하는 승려가 머무는 곳이었다. 사자암은 국가의 비보 사찰로,²⁾ 적멸보궁과 함께 오대산 신앙의 공간성과 그 실체를 증명해주고 있다.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오대산의 화엄사상을 상징하며,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 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자장 이후 오대산의 중심인 중대에는 毘盧遮那佛을 首位로 한 1만의 문수보살이 현신하고 있다. 중대신라기 오대산 중대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의 기도처는 진여원이었으며, 진여원 자리 부근에 새롭게 확장하여 조성된 것이 상원사이며, 그 위에 적멸보궁을 올라가는 중간에 설치된 것이 사자암, 그리고 중대의 산 정상에 위치한 것이 적멸보궁이다.(도 1, 2)

2) 비보사찰은 고려 초 道詵密記에서 산수의 형세를 고려하여 地德으로 국가에 이익을 갖다주도록 세운 70여 곳의 사원터로, 오대산 사자암도 비보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고려 초무렵 사자암은 법당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훈요십조에 전하듯이 도선이 정한 사원터는 이후 사원 건립과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개정판, pp.264~265.



도 1. 중대 사자암, “중대향각” 현판, 조선 ©불교문화재연구소



도 2.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여말선초, 38cm, 월정사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적멸보궁은 이중구조의 불전이라는 독특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와 외부 건물이 이루고 있는 기둥열은 독립된 구조체로 서까래만을 공유하여 구축된 독특한 방식의 건축구조다. 이러한 특성은 추정건대 조선 전기의 내부 건물 위에 조선 후기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외부 건물을 세운 것이다.³⁾

오대산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월정사에 전해오는 閔漬(1248~1326)의 『오대산사적』⁴⁾을 중심으로 하여 동시대 인물인 一然(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와 비교 분석하면서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과 관련된 사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조성 배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⁵⁾

1. 『오대산사적』에 보이는 사자암 기록 검토

『삼국유사』에서는 「臺山五萬眞身」조에서 오대산 이야기가 전개된다. “오대산에 眞聖 문수보살이 거주한 곳이라고 한 것은 신라의 자장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자장은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貞觀 10년인 636년⁶⁾에 당나라로 들어갔다”라고 첫 문장이 구성된다. 『삼국

3) 이강근, 「오대산 中臺 寂滅寶宮 건축에 대한 연구」,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술총서』Ⅲ, 2002, pp.85~105; 문화재청,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록」, 2018 참조.

4) 1307년에 작성된 『오대산사적』은 고려의 문신이자 외교관인 閔漬에 의해 편집되었다. 민지는 발문에서 ‘옛 기록이 모두 신라시대 향가로 쓰여져 있어 문장을 바꾸어 모든 사람들이 大聖人の 영험한 발자취를 알게 해달라’는 스님의 요청으로 『오대산사적』을 편찬하게 되었노라고 말한다. 민지의 1차 『오대산사적』 구성은 ① 서문, ②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③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④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 ⑤ 跋文(1307년 閔漬 記); 조선시대 오대산 관련 내용은 ① 「我朝本山事蹟」: 1400~1466년 태조와 세조 및 상원사증창 기록, ② 「璿源寶略奉安事蹟」: 1606년의 오대산사고 설치 기록, ③ 「山中散記」: 1833년의 대화재와 이후의 중건, ④ 1902년 「跋」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오대산사적』은 월정사에서 1999년에 발간한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부록에서 인용했다. 내용으로 보아 丁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9월 국립춘천박물관의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도록 부록에 「오대산사적」(번역 이종수)이 실려 있어 함께 참조했다.

5) 오대산 기록은 『조선불교통사』에도 실려 있으나 『오대산사적』과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유사하다.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에서 전하는 오대산 관련 기록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광연, 「한국 오대산 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사학연구』118, 2015, pp.204~232 참조.

유사』 「慈藏定律」과 민지의 『오대산사적』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에서는 자장이 오대산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기록에서 모두 살아 있는 문수보살의 현신이 아니라, 제석천이 만든 문수보살상,⁷⁾ 즉 조형물인 문수보살 조각상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흥미롭다. 33천으로 올라간 부처를 그리워하며 優填王이 최초로 만든 불상인 栴檀瑞像 이야기처럼, 진신 문수보살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염원은 조형물을 탄생하게 한다. 조형물에는 조성자의 바람과 소망이 깃든다. 『오대산사적』에서도 등장하는 미술품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사자암의 성격 및 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과 관련된 단서를 얻고자 한다.

□ 사료 1: 자장의 오대산 진신사리 봉안 기록

一 閱瀆, 「사리를 봉안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조사의 전기」(이하 「제1조사전기」)

“정관17년(643, 선덕12) 계묘에 자장이 귀국하자, (중략)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 오대산 인도스님이 전수한 사리를 구층탑 心柱에 봉안하고 황룡사에 주석하였다고 한다. 그 후 명주(현 강릉) 오대산을 찾아가 地爐峰을 올라가 부처님의 두뇌사리와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伽羅墟에 비석을 세웠다.”

<사료 1>은 오대산에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전하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⁸⁾ 『삼국유사』나 자장의 전기가 전하는 『續高僧傳』에도 자장이 오대산에 불사리를 봉안한 기록이 없다.⁹⁾ 자장은 황룡사 탑을 건립한 후 오대산 중대의 지로봉으로 가서 부처님 사리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이를 기념하여 향나무가 자란 곳[伽羅墟]¹⁰⁾에 비석을 세웠는데, 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향공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¹¹⁾ 이로서 자장은 불교의 인연이 있는 신라로 오대산 문수 신앙을 이식하게 된 것이다. <사료 1>의 다른 부분에서 梵僧은 말하기를, 신라 황룡사는 세존과 가섭불이 법좌를 마련하여 설법하던 곳이었고, 명주 땅 오대산도 일만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므로 그곳을 찾아가 친견할 것을 권한다. 신라에 前佛期 7처가람이 있다는 전승이 형성되는 데 자장의 역할이 크며,¹²⁾ 이는 다음 사료인 정신태자인 보질도(보천)와 효명에게로 이어진다.

6) 一然은 慈藏의 入唐 연도인 636년에 대해 “三國本史” 즉 『三國史記』를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자장의 입당 시기를 貞觀10년(636)이라고 한 후, 夾註에서 『唐僧傳』(『續高僧傳』)에서는 정관12년(638)이라고 하였지만 『三國本史』 기록을 따라 정관10년으로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오대산사적』과 「황룡사 9층목탑 চাল주본기」에서는 자장의 입당연도를 638년(貞觀12)으로 기록하고 있다.

7) 『삼국유사』 「慈藏定律」에서는 문수상 재질을 소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대산사적』에서는 재질을 밝히지 않았다.

8) 이원석, 「五臺山中臺 寂滅寶宮의 역사」, 『한국불교학』67, 2013, p.170.

9) <사료 1>의 내용은 『오대산사적』 丁本에만 나와 있고, 정본과 같이 ‘일효가 지은 전기’를 인용한 乙本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후대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 염중섭(자현), 「『五臺山事蹟記』의 판본과 閱瀆의 慈藏傳記 자료 검토 - 새로 발견된 민지의 자장전기 자료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46, 2016, p.125~126.

10) 伽羅는 침향속 향나무 芯으로 만든 고귀한 향의 일종.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沈香이나 伽羅라고 하는 향목이 중요시되어 왔으나 어떤 나무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몇 종류의 나무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를 벌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땅속에 오랫동안 묻었다가 화석처럼 된 것을 파서 썼기에 원식물의 동정은 매우 어려우나 서향과의 Aquillaria agallocha 또는 이와 가까운 종류의 식물로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네이버 지식백과] 향목 [香木] (두산백과)

11) 자현 저, 퇴우 감수, 『오대산을 가다』, 조계종출판사, 2017, p.24.

12) 이기영, 「7, 8세기 新羅 및 日本의 佛國土思想-山嶽崇拜와 四方佛」, 『종교사연구』2, 1973, pp.4-9.

□ 사료 2: 비로자나삼존불과 대장경을 화엄사(前 보질도방)에 봉안한 기록

一 閱瀆, 「오대산의 聖跡과 신라 정신태자, 효명태자의 傳記」

[사료 2-1]

“당 神龍 원년(705, 성덕왕4) 을사년 8월 3일에 성덕왕이 친히 군사와 백성을 거느리고 오대산에 이르러 처음 진여원을 창건하고 문수보살 泥像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비구스님 다섯 사람으로 길이 『화엄경』을 읽도록 하고 華嚴結社라 하였다. (중략)

[사료 2-2]

정신태자는 육신이 허공을 날아 流沙江을 건너 蔚珍大國에 이르러 掌天窟로 들어가 밤에 隨求陀羅尼를 염불하자 창건굴의 신이 현신하여 말하였다. “이 굴에 머문 지 3천 년인데 오늘에야 처음으로 수구다라니경을 들었습니다. 원컨대 보살계를 받고자 합니다.” 정신태자가 그의 청을 따라 보살계를 전하여 주었다. (중략) 다시 오대산으로 돌아와 神聖窟로 들어가 50년 동안 정진수도하였다. (중략) 중대 진여원에는 전에 모셨던 문수보살 니상을 후벽에 봉안하고 (중략) 寶叱徒房(보질도는 淨神太子의 兒名)을 華嚴寺로 개명하여 그곳에 圓像 비로자나삼존불과 『대장경』을 봉안하고 (중략) 오대산 五社의 本五로 삼았다. 또 文殊岬에 佛下院을 더 배정하여 산내 六社가 모두 모이는 都會處로 삼도록 하고, 역시 정진 수행하는 일곱 스님에게 밤낮으로 항상 神衆을 예념하도록 하였다.”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 및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조에서도 두 태자의 입산과 오대의 각 진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사료 2-2>에서 민지는 寶叱徒를 淨神太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연은 정신은 신문왕으로, “정신의 태자, 보질도와 효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¹³⁾ 효명태자가 왕위에 오른 후 신룡원년인 705년에 진여원을 창건한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조와 <사료 2-2>의 『오대산사적』에 의하면, 보질도태자는 705년 진여원 창건 이후 50년간 수행을 이어가는데, 입적할 무렵(755년경으로 추정) 뒷날 산중에서 행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과 임금이 대대로 잊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각 대에 맞게 글로 남겨둔다.¹⁴⁾ 태자 보질도가 남긴 유언 내용 중 오대산 중대 관련 내용을 표1로 정리해보았다. 보질도는 자신의 암자를 화엄사(『삼국유사』에서는 “화장사”)로 개명하고 비로나자삼존상과 대장경¹⁵⁾을 봉안하고, 하원인 문수갑(『삼국유사』에서는 “문수갑사”)에는 오대의 여러 결사를 체계화하는 중심 도회소를 두어 五臺寺의 본사로 삼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다. 통일신라 최초의 비로자나불상이 영태2년인 766년 산청의 석남암사 불상인 것을 생각해보면, 기록에 있는 것처럼 오대산 중대 화엄사에 비로자나불상이 등장하는 시기는 현실적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13) 일연은 「臺山五萬眞身」에서 淨神大王 태자 寶川, 孝明 두 형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를 달고 있다. “『國史』를 살피건대, 신라에는 정신·보천·효명 세 부자에 대한 글이 없다. 그러나 이 기록의 下文에 이르기를, 神龍 원년에 터를 닦고, 절을 세웠다고 하였는데, 곧 신룡은 聖德王 즉위 4년(705) 乙巳이다. 왕의 이름은 興光이요, 본명은 隆基로 神文의 둘째 아들이다. 聖德王(재위 702~737)의 형(孝照)은 이름이 理恭이며, [恭을] 洪이라고도 썼는데, 역시 신문왕의 아들이다. 신문왕 政明의 자는 日照다. 政神은 아마도 政明·神文의 와전인 듯하다. 효명은 곧 효조의 [조(照)를] 소(昭)로 쓴 데서 온 와전인 듯하다. 기록에 이르기를, 효명이 즉위하고, 신룡 연간에 터를 닦고 절을 세웠다고 말한 것도 역시 분명치 못한 말이니, 신룡 연간에 절을 세운 이는 성덕왕이다.” 일연은 정신은 신문왕이며, 신문왕의 아들은 효소왕과 보천, 성덕왕이 되는 효명으로 보고 있다.

14)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 참조. 『오대산사적』에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성덕왕이 등장하는데 『삼국유사』 내용과 같이 보천(보질도)태자가 입적시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 맞을 듯하다.

15) 대장경을 봉안한 기록과 관련하여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월정사 시 장경비”(건판17082)가 주목된다. 이 답본에는 고려 1339년 월정사에 대장경을 봉안하는 데 왕비가 백금을 하사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석은 전하지 않지만 답본은 조선 후기 『大東金石書』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제현이 비문을 짓고 승려 종고가 글씨를 썼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왕비는 공민왕의 어머니 덕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 보길도태자에 의해 자장의 오대산 문수신앙이 확장되어 화엄신앙이 오대산 중대에 자리 잡게 되며, 비로자나삼존불이 봉안되는 화엄사(前 보길도방)는 그 중심이 되었다. 사자암의 연원은 아마도 이 화엄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표 1-1> 中臺 신앙의 분화와 사찰 성립: 진여원, 화장사(화엄사), 문수갑(사)

시기/구분	A.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		B. 『오대산사적』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眞如院 개창 (705)	眞如院 개창	文殊 泥像을 堂 안에 봉안. 華嚴社 조직	眞如院 개창	文殊 泥像 後壁에 봉안, 黃地畵 1만 文殊와 36化形. 화엄결사라 함
진여원 개창 50여 년 후 (보길도태자 임종시)	眞如院 (華嚴寺)	泥像의 文殊 不動像 봉안. 黃地에 비로자나를 수위로 한 36化形 탕화 조성	眞如院 (華嚴結社)	앞서의 文殊泥像 봉안, 黃地에 1만 文殊와 36化形 탕화 조성
	寶泉庵 “華藏社”로 改創	圓像毘盧遮那三尊과大藏經 모심. 화장사를 五臺의 본사로 삼음	寶叱徒房 “華嚴寺”로 改名	圓像毘盧遮那三尊과大藏經봉안. 오대산 五社의 本社로 삼음
	文殊岬寺	下院 문수갑사 더 배치	文殊岬	문수갑에 佛下院을 더 배정

조선시대 宋光淵(1638~1695)의 「五臺山記」(『泛虛亭集』 권7)에 의하면, 1676년에 오대산을 방문하여 신성굴 아래 신라 왕자가 도를 닦던 곳이 있으며, 다시 10여 리를 가서 화엄암에 도착했다고 하며, 상원사 아래가 진여원, 환적당, 화엄암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丁時翰(1625~1707)의 『산중일기』 정묘년(1687) 10월 11일조에도 오대산 북대에서 중대 적멸보궁으로 이동한 후 하산하는 과정을 기술하는데, 적멸보궁→금봉암→사자암→상원사→진여원→보길도암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⁶⁾

송광연이 오대산 중대를 방문한 1676년, 정시한이 여행한 1687년 시점은 이미 幻寂義天(1603~1690)에 의해 1660년 진여원이 중창되었고, 1672년 보길도태자가 수행하던 신성암이 창건된 후여서 이들의 유산기에 진여원과 신성암이 언급될 수 있었다.¹⁷⁾ 환적의천이 중창한 진여원은 아마도 보길도태자가 임종시에 건립한 원 위치를 찾아서 중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이후 오대산 신앙의 변천에 따라 진여원이나 화엄암 등의 암자 위치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암자의 이름도 변경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보길도태자 당시에 보길도방이 화엄사로 변경되었으며, 고려 말 권근의 「五臺山 西臺 水精庵 중창기」에서 보듯이 서대 암자는 미타암이 아니라 수정암(염불암)이어서, 오대의 암자는 시기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다.¹⁸⁾ 신라 때 비로자나삼존을 모시던 화엄사(前 보길도방)가 이후 적멸보궁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중대 정

16) 적멸보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각과 요사 뒤로 돌을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석가불의 두골을 모신 곳이라고 한다.” 정시한, 신대현 역, 『산중일기』, 혜안, 2005, p.355.

17)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발표집, 월정사성보박물관, 2023, pp.115~120.

18) 현재 오대산 암자 이름은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서대 염불암, 북대 미륵암, 중대 사자암 및 상원사 등이 위치해 있다.

상으로 위치가 옮겨지고 사자암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표 1-2> 8세기 중후반, 보질도태자 임종시 진여원과 화엄사, 문수갑사 위치 추정: ①현 적멸보궁 ②현 사자암 ③추정 진여원(상원) ④추정 화엄사(보질도방) ⑤추정 문수갑사(하원, 현 상원사)

최연식 교수는¹⁹⁾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을 근거로 고려시대 당시 오대산의 중심 사찰은 보질도태자가 머물렀던 암자를 중창한 華藏寺(華嚴社)였으며, 이 화엄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위와 아래에 있던 사찰인 진여원과 문수사가 각기 上院과 下院으로 일컬어졌지만²⁰⁾ 이후 오대산 입구에 위치한 월정사의 규모가 커지는 한편 화엄사의 寺勢가 위축되면서 진여원과 문수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월정사의 상원으로 불린 것으로 보았다.²¹⁾ 화엄사 사체가 위축된 시기는 아마도 고려 말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그 이전 신라시대에는 화엄종뿐 아니라 선종과 중기밀교에서도

주존으로 비로자나불을 신봉하는 등 비로자나불의 유행에 따라²³⁾ 화장사(화엄사) 사체는 더욱 확장되어²⁴⁾ 중대 정상 쪽으로 위치를 옮겼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나말려초 道詵에 의해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고려국의 관리를 받아오다가 원 간섭기 금강산 신앙의 부상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오대산 사자암의 사체가 위축되어 빈터로 남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암으로 불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뒤에서 살펴볼 <사료 4>와 관련되며, 사자암 전각 외에는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곳이 오대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사료 3: 사자암이라 이름 지은 이유

－ 「山中散記」

“중대 아래 사자암이 있다. 자장법사가 당나라에서 獅子로부터 부처님 정골 사리를 싣고 돌아와 오랫동안 그곳에 주석하였기에 사자암이라 이름하였다. 사자암 옆에 석굴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석굴 아래 갈대밭은 사자를 먹이기 위해 경작한다고 한다. 북대 象王山과 동대 滿月山은 모두 신라

19) 최연식, 『『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 『서강인문논총』44, 2015, pp.131~133.
 20)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매일 이른 새벽에 문수보살이 眞如院, 지금의 上院에 이르러 36가지 모양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每日寅朝文殊大聖到眞如院, 今上院變現三十六種形)”, “또 下院의 文殊岬寺를 더 배치하여 여러 社들의 都會로 삼고 복전승 일곱 명이 밤낮으로 늘 화엄신중예참을 행하고 (又加排下院文殊岬寺爲社之都會, 福田七貞晝夜常行華嚴神衆禮懺.)”
 21) 최연식 교수는 현재의 상원사는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에 언급되고 있는 下院의 文殊(岬)寺로, 「五臺山文殊寺石塔記」에 언급된 것과 비슷한 석탑이 현재 오대산 上院寺 영산전 앞에 전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고 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복장물인 「懿淑公主發願文」(1466)에 문수보살상 등 8구의 불보살상과 16나한상, 天帝釋像 등을 조성하여 “五臺山 文殊寺”에 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기 중엽의 세조 때까지도 현재의 상원사가 문수사로 불리고 있던 것이다. 최연식, 앞의 논문, pp.131~133.
 22) 본 논문에서 살펴볼 <사료 5>의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에서는 1400년 당시 사자암이 빈터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문명대, 「毘盧遮那佛의 造形과 그 佛身觀의 研究」,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pp.476~502.
 24) 서지민 교수는 비로자나삼존불상이 봉안된 화장사가 오대산의 중심 사찰이 아니며, 『60화엄경』에 기반하는 신앙체계 때문에 『80화엄경』의 법신불인 지권인 비로자나삼존상은 화엄종 사찰에서 주존으로 신앙되지 못하고 부속 전각에 봉안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서지민, 「신라시대 비로자나삼존불상의 양식특징과 조성배경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26, 2018, pp.113~119.

때 六結社가 있던 옛 터전이다. 조선 초 나옹화상이 주석할 즈음에 북대의 兜率庵, 동대의 觀音庵을 중건, 보수하여 寶刹로 삼았다.”

이 사료는 사자암 명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앞서 <사료 2>에서 중대에 위치한 보질도방은 華嚴寺로 이름을 바꾸어 비로자나불을 모신 것으로 보아 사자암의 전신일 것으로 추정해보았는데, <사료 3>가 쓰여진 시기는 懶翁惠勤(1320~1376)이 오대산에 주석한 1360년(공민왕9)과 1369년(공민왕18)경 이후로 추정되지만, 나옹이 주석한 시기를 조선 초로 추정하는 오류를 보이며, 북대 도솔암, 동대 관음암을 중건 보수한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옹은 두 차례 오대산에 머무는데, 1차 시기인 1360년에는 오대산 북대의 象頭菴에, 2차 시기인 1369년에는 현재 오대산 사고가 있는 남대 靈鑑菴(靈感菴)²⁵⁾에 주석하였다. 나옹의 오대산 입산 동기는 오대산이 한국 불교의 聖山이라는 장소성과 더불어 오대산 인근의 명주가 나옹의 본산인 굴산산문 소속인 점을 꼽고 있다.²⁶⁾ 나옹은 북대 고운암에 머물면서, 오대산 神聖菴의 幻庵混修(1320~1392)²⁷⁾와도 교류하였다.

관련하여 나옹의 제자인 釋英露菴이 상원사 僧堂을 중건한 기문이 전한다.²⁸⁾ <표 2>에서 보듯이 상두암에 나옹이 주석한 이후 麗末鮮初期 覺雲雪嶽, 석영로암, 지원(지선) 등 나옹의 문도들은 그에 대한 추념 불사를 전개하면서 ‘나옹의 袈裟와 拂子を 오대산에 봉안하였다.’²⁹⁾ 여말선초 나옹이 오대산에 머문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해 오대산 불교는 또 한 번의 중흥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옹은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굴산문 소속으로, 원의 유학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와 두 번이나 오대산에서 수행하였는데, 아마도 원의 유학 중 오대산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통일신라 보질도태자가 유훈으로 남긴 화엄사(화장사)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은 신라 하대 굴산문이나 가지산문 등 마조도일 계통 선종의 주존으로 모셔지는 등 중요도가 높아져 위치를 비보사찰의 지점인 중대 사자암 쪽으로 이동하여 중대에 비로자나불의 진신을 다시 현신코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나옹의 문도에 의한 오대산 중창 기록³⁰⁾

연대	이름	관련 전각	특이사항	출전
1377년 11월	釋英露菴	상원사 僧堂 중건	聖僧 나옹상 앞에 놓인	李穡, 「五臺上院寺僧堂記」.

25) 靈鑑菴은 조선 전기 尙儀 조씨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涵虛得通이 1420년(세종2) 오대산에 들어가 五臺의 여러 성인들에게 공양하고 영감암에 있는 나옹의 진영에 제사한 뒤 꿈에서 己和, 得通이라는 법명과 법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란 직후 실록을 수호하는 사찰로 지정된 이후 사격을 갖추게 되면서 靈鑑寺로 불리게 되었다. 金守溫, 「靈鑑庵重創記文」, 『拭疣集』; 탁효정,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20, 2022, pp.217~220. 참조

26) 염중섭, 「懶翁에게서 살피지는 ‘五臺山佛教’의 영향-나옹의 五臺山行과 文殊華嚴을 중심으로」, 『은지논총』39, 2014, pp.182~185; 황인규, 「나옹과 오대산 북대」, 『불교학연구』62, 2020, pp.37~40.

27) 幻庵混修는 그의 비문인 「忠州靑龍寺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文」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이 檜巖寺에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나 가지 않고, 금오산을 거쳐 오대산 神聖庵에 머무르며 당시 孤雲庵에 있던 懶翁과 자주 교류하였다고 전한다. 나옹으로부터 金襴袈裟와 象牙拂子, 山形杖을 신표를 받았으며, 1371년 나옹이 회암사에서 功夫選을 주관할 때 유일하게 법기로서 인정을 받았다. 고려의 마지막 국사로, 조선 태조는 선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 시호를 普覺, 탑호를 定慧圓融이라고 했다. 충주 청계산 청룡사에 탑과 탑비가 세워져 있다. 이원석, 앞의 논문, p.183; 황인규, 앞의 논문, 2020, p.50.

28) 李穡, 「五臺上院寺僧堂記」, 『東文選』권75. 상원사 승당 중건이 마무리된 1377년 11월, 聖僧 나옹상 앞에 놓여 있는 촛불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지는 이적이 발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 李穡, 「安心寺舍利石鐘碑」, 『朝鮮金石總覽』上, ‘袈裟拂並一在臺山’; 황인규, 앞논문, 2020, p.50에서재인용.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나옹의 여말선초기 현창운동에 대한 교단의 분위기 및 추모 열기에 대해서는 남동신, 「여말선초기 懶翁 현창 운동」, 『한국사연구』139, 2007, pp.161-203 참조

			촛불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지는 이적 발생	『東文選』권75
1393년	懶菴游公 牧菴永公	서대 수정암(염불 암) 중창	미타팔대보살을 그려 봉안	權近,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 記」, 『陽村集』 권14, 記類
1400년 11월	負暄堂 覺雲雪嶽	중대 사자암 중수를 태상왕에게 건의	태상왕 낙성식 참여 및 세조 보궁 참배	權近, 「五臺山獅子庵重創記」, 『陽村集』 권13, 記類
1402년 5월 기문 작성	도인 志元 (志誥)	동대 관음암 중창	牧隱 사후 그의 문인 권근에게 기문 청함	權近, 「五臺山觀音庵重創記」, 『陽村集』 권14, 記類
1469년	비구니 惠明 등	남대 영감암 중창	불전에 지장, 서쪽 祖 室에 나옹의 진영 봉안	김수온, 「靈鑑菴重創記」, 『拭 疣集』 권, 記類

□ 사료 4: 사자암 관련 조선 왕실 기록

－ 「조선조 본산 사적[我朝本山事蹟]

“태조가 상왕으로 있을 때 사자암을 위하여 전답의 牌를 하사하였다. 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사자암 持音(주지)에게 內藏庫³¹⁾에 속한 강원도 연곡현의 전답 모두 20결 58복 8속을 하사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작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니, 원컨대 길이길이 施納하도록 하고, 이들 賜牌와 陳省³²⁾을 시행할 것. 1401년(건문 3) 신사년 11월 24일(태상왕 수결)³³⁾】
(중략) 세조는 친히 금강산에 행차하여 曇無竭菩薩을 예배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10월 초5일에 친히 본사(월정사)에 이르렀다. 이튿날 오대산 전체에서 스님 300여 명을 청하여 공양하였고 여러 암자와 두 사찰에 식량을 보시하였다. 이날 齋를 마치고 세조는 친히 사자암에 이르러 곤룡포를 입고 寶宮에 올라 향을 살라 예경하고, 공양과 보시를 하였다. 그날 밤 放光으로 땅이 진동하고 瑞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세조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사자암을 중건한 다음해인 1401년 이성계가 사자암 주지에게 사패전을 내린 문서, 1466년 세조가 오대산에 거동하여 사자암에서 (적멸)보궁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한 후 보궁을 올랐다는 기사 내용이다. 세조와 관련된 기사에서 문헌기록에 “寶宮”이 처음 등장한다.³⁴⁾

<사료 4>에는 태조가 상왕으로 있을 때 사자암을 위하여 1401년(建文3) 11월 24일 전답의 牌를 하사한 문안이 그대로 『오대산사적』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안을 참고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자료에서 문서의 실물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도 3) 사패교지에는 태상왕의 수결과 함께 “사자암 주지에게 內藏庫에 속한 강원도 연곡현의 전답”을 하사한 내용인데 『오대산사적』 「我朝本山事蹟」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되며, 1935년까지 이 문서는 잘 보존되고 있었다.³⁵⁾

30) 황인규, 「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 『불교연구』36, 2012 참조.

31) 內藏庫는 조선 초기 임금에게 올린 공물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치한 창고다.

32) 陳省은 지방 관아에서 중앙관아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를 말한다.

33) 『오대산사적』 원문은 아래와 같다. 賜獅子庵持音 內藏庫屬江原道連谷縣伏田畝 并二十結五十八八束量乙 佛供僧堂作法 願以永求施納爲良乎事 是等賜陪及陳省內乙用良使內乎事 建文參年辛巳十一月二十四日 (太上王手訣)

34) 이원석, 앞의 논문, pp.189~190. 이원석은 『세조실록』에 세조가 상원사에 거동한 날자가 윤3월 17일 戊子로 되어 있어 7개월의 괴리가 있고 당일 보궁에 올랐다는 기록은 없으나, “舍利分身의 기이함이 있어 軍中の 범죄자를 赦宥하였다”라고 하여 보궁 참배 후 瑞祥이 나타났다는 『오대산사적』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세조와 함께 상원사에 수행한 인물은 孝寧大君, 李補, 永膺大君, 李琰, 勿巨尹 등과 영의정 申叔舟, 상당군 韓明澹, 중추부동지사 金守溫 등으로, 세조는 行宮에 돌아와서 신숙주·한계희·노사신에게 명하여 文科試場에 나아가서 參試하게 하였다.

35)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번호인 건판12408(강원평창 월정사 칠불보전과 팔각구층탑)부터 건판12443(강원평창 오대산사고 사각 상층 배후)까지 월정사 관련 사진인 것으로 보아 이 賜牌도 1935년 촬영 당시에 월정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賜獅子庵持音 內藏庫屬江原道連谷縣
 伏田畚并貳拾結伍拾捌負捌束量乙 佛供僧堂作法
 願以永求施納爲良乎事
 是等 賜陪及陳省內乙用良 使內乎事
 建文參年辛巳拾壹月貳拾肆日

사자암 지음(주지)에게 내장고에 속한 강원도 연곡현의 전답 모두 20결 58복 8속을 하사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작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니, 원컨대 길이길이 시납하도록 하고, 이들 사패와 진성을 시행할 것.

1401(건문3) 신사년 11월 24일(태상왕 수결)³⁶⁾

도 3. 강원 평창 월정사 사자암 전답기진문서, 촬영 1935, 국립중앙박물관 건판12428

한편 1464년(세조10) 당시 세조비 정희왕후는 왕의 치병을 위해 신미와 학열의 건의로 상원사를 중창하게 되며 세조는 물자를 지원하고³⁷⁾ 공덕소(어첩)를 직접 짓는 등 상원사 중창에 힘을 보탠다. 1466년 상원사 낙성 때 세조는 상원사로 거둥하여 친히 태조의 원찰인 사자암에 이르러 곤룡포를 갈아입고 참배할 준비를 갖춘 후 寶宮에 올라 향을 사르고 예경하며, 공양과 보시를 하였다. 그날 밤 방광으로 땅이 진동하는 등 서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오대산사적』의 내용은 金守溫(1409~1481)의 「오대산 상원사 중창기」³⁸⁾에도 전하나 여기서는 사자암과 보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세조가 “친히 佛殿으로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예배하였으며,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역시 큰 절을 올리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료 3>의 기사로 보아 당시 사자암은 보궁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 태상왕 이성계와 권근의 「사자암 중수기」(1401) 기록 검토

앞장에서는 『오대산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중대 사자암과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 인물 등을 살폈다. 이 장에서는 1401년(태종1)에 작성한 권근의 「사자암 중수기」를 검토하며,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조성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 사료 5: 태상왕 이성계와 사자암 중창기

－ 권근, 「五臺山獅子庵重創記」, 『陽村集』³⁹⁾ 권13, 記類

36) 탈초 및 번역은 이종수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종수 번역, 「오대산사적」,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도록, 국립춘천박물관, 2023, p.177, p.185 참조.

37)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2월 20일 정유 3번째기사 1465년 명 成化1. “중 信眉가 강원도 五臺山에 上元寺를 構築하니, 承政院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 馳書하여 正鐵 1만 5천 斤, 中米 5백 석을 주고, 또 濟用監에 명하여 綿布 2백匹, 正布 2백필을 주게 하고, 內需所는 綿布 3백필, 正포 3백필을 주게 하였다.”

38) 『拭疣集』 권2 및 『오대산사적』 “世祖躬詣佛殿 三爇香 行禮拜 令侍從群僚亦許膜拜”

39) 권근은 牧隱 李穡의 문인으로, 목은은 益齋 李齊賢에게 師事하였고, 익재는 菊齋 權溥의 문인인 동시에 그의 사위였다. 권근은 일찍이 조정에 건의하여 『四書朱子集註』를 간행하는 등 초기 성리학 보급에 공헌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양촌은 바로 그의 증손이다. 양촌은 당시 유학계의 정통적 연원을 계승하여, 목은 문하에서 鄭夢周, 金九容, 朴尙衷, 李崇仁, 鄭道傳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하여 여말의 학풍을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고전번역원

“建文 3년 봄 정월 辛未日에 啓運神武 太上王殿下께서 內臣 判內侍府事 李得芬을 시켜 參贊門下府事 臣 권근을 命召하여 傳旨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강릉부의 오대산은 빼어난 경치가 예로부터 드러났다가에, 원찰을 설치하여 勝果를 심으려 한 지 오래였다. 지난해 여름에[“去年夏”] 늪은 중 雲雪岳⁴⁰⁾이 이 산에서 와서 고하기를 ‘산의 中臺에 사자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국가를 補裨하던 사찰입니다. 臺의 양지쪽에 자리잡고 있어 이 대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거쳐 가는 곳입니다. 세운 지 오래되어 없어졌으나 빈터는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한탄하고 상심하니, 만약 이 암자를 다시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慶祝함이 반드시 다른 곳보다 배나 더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기뻐하여 工匠을 보내어 새로 세우되, 위에 3칸 전각을 세운 것은[“上起三楹⁴¹⁾”] 부처를 安置하고 僧房으로 쓰기 위한 것이요, 아래 2칸을 세운 것은[“下置二間”] 문간과 洗閣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나 형세에 합당하게 되었으니, 알맞게 하고자 하여 사치하거나 크게 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가 이미 끝나매 겨울 11월에 親臨하여 보고 落成을 하였으니, 대개 먼저 간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福利를 후세에 미루어 物我가 다같이 받고 幽明이 함께 힘입으려 한 것이니, 卿은 글을 지어 영구히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중략)⁴²⁾

권근(1352~1409)의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는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료다. 1401년인 建文3년 봄 정월, 당시 태상왕이었던 이성계가 권근에게 직접 전지를 내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자암 중수를 위해 승려 설악이 태상왕을 찾아온 시점이 원문에서는 “去年夏”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01년, 기문을 쓰기 전년인 1400년(정종2)에 태상왕이 승려 설악을 만났고, 그해 겨울인 11월에 낙성을 위해 태상왕이 오대산에 친림하므로 사자암 건립 연대는 1400년이다.⁴³⁾ <사료 4>의 『오대산사적』 「산중산기」의 기사에서 1401년 11월 24일 사자암에 전답을 내린 문서(도 3)는 사자암 낙성 1년 후의 일이다.⁴⁴⁾

40) 원문의 “雲雪岳”은 나옹의 제자 負暄堂 覺雲雪嶽으로 추정된다. 부현당은 나옹의 시자로 나옹과 오대산에서도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인규, 앞의 논문, 2020, p.48 참조.

權近, 「送雲雪岳上人序」, 『양촌집』 卷15에는 “懶翁之嗣雲雪岳”이라 하였으며, 李穡, 「負暄堂記」, 『牧隱文藁』 卷6에는 아래와 같이 각운설악을 소개하고 있다. “雪嶽上人是 나옹의 제자이다. 나옹은 당초 神光寺에 錫杖을 머물고 있다가 圓寂寺로 거처를 옮겼으며, 다시 노골산과 청평산, 오대산의 산사를 거쳐 松廣寺에서 주석하였다. 그리고 또 송광사에서 회암사로 왔다가 다시 회암사를 떠나 서운산과 길상산 등의 산사를 돌아다닌 뒤에 회암사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상인이 이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직접 薰陶를 받은 결과 자못 터득한 점이 있었다. (중략) 상인이 이번에 나를 찾아와서는 자기 거처에 이름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중략) 그래서 그의 요청을 다시 사양하지 못하겠기에, 負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면해 보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다. 스님의 스승이 설악이라고 스님의 호를 지어 준 것은, 아마도 “일천 산에는 새들의 날갯짓 끊어지고, 일만 길에는 사람의 발자취 사라졌네.[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라는 시의 기상을 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후략)” 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이상현 역 참조.

41) 고전번역원과 『국역 陽村集』에서는 ‘三楹’을 ‘3채’로 번역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세 칸 전각”으로 보고자 한다. 楹은 柱와 함께 기둥을 뜻하지만, 柱보다는 대체로 크거나 곁을 높여 부르는 명칭으로 쓰이는 용례가 많다. 기둥 중에서도 가장 전면의 退柱를 뜻함에 따라 자연히 間數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어 전각의 규모를 표현하는 용례로 사용되었다. 김재웅, 이봉수, 「營建儀軌에 실린 木部材用語의 用例와 變遷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60, 2008, p.76; 이원석, 앞의 논문, p.185 주84).

42) 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김주희 역 참조.

43) 『정종실록』 정종 2년 10월 24일 을묘 2번째 기사에 태상왕이 “장차 臺山-洛山에 거둥하려 하니, 나라 사람들이 乘輿의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라 하였고, 정종 2년 11월 13일 계유 12번째 기사에 태상왕이 오대산에서 돌아와 임금이 長湍의 麻川에서 맞이하였다고 하므로, 1400년 10월 24일~11월 13일 동안 오대산 사자암과 양양 낙산사에 거둥했으며 이 시기에 사자암 낙성을 하였을 것이다.

44) 權近의 「五臺山獅子庵重創記」 집필 연대와, 태상왕의 사패교지를 내린 연대가 모두 1401년이고, 교지를 내린 달이 하필 前年 태상왕이 낙성식에 참여한 같은 11월이라, 사자암 중창 연대도 1401년 11월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뻔했다. 이러한 오류는 지난 9월 16일 상원사 학술대회 토론자로 지정된 심영신 교수가 바로 잡아주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성계가 사자암을 중수하여 원당으로 삼은 이유는 수승한 수행처로 이름 높은 오대산이라는 장소성과 더불어 왕사인 無學自招(1327~1405)의 스승인 나옹혜근과 이성계의 오랜 지기인 牧隱李穡(1328~1396)이 말년에 오대산에 머물렀기에 특히 오대산을 주목하였을 것이다.⁴⁵⁾

사자암은 <사료 5>에서 보듯이 이성계의 명으로 건물을 세울 “工匠을 보냈다”고 하므로 아마도 고려와 조선 건국 초 토목과 營繕을 담당한 繕工監의 공장을 현지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물은 두 채를 지었다. 위쪽 3칸 크기의 법당은 불상을 안치하고 승려가 거주할 공간으로, 아래의 2칸 부속 건물은 문간과 洗閣용이었다.

고려 국가의 비보사찰이었던 중대 사자암은 1400년 나옹의 문도인 각운설악의 건의로 그해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완공되자 태상왕은 그해 11월에 친림하였다. 또한 원문에서는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나 형세에 합당하게 되었으니, 알맞게 하고자 하여 사치하거나 크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전하는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크기가 38cm 내외인 것으로 보아 당시 중수된 사자암 전각의 규모에 알맞은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건한 사자암 건물은 현재 찾아볼 수 없지만, 적멸보궁의 이중구조 건물 중 내부 건물은 다포식의 공포 구성 등으로 볼 때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올라가는 고식을 보이고 있으며, 1435년에 중창된 안동 봉정사 대웅전, 1484년 중수된 개심사 대웅전 등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과 흡사한 양식을 보인다고 한다.⁴⁶⁾ 이로 보아 적멸보궁 내부 건물은 사자암 중건과 함께 지어졌거나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 자료와 도상 특징

중대 사자암에 봉안되었던 비로자나불좌상은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을 형상화한 불상으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智拳印을 취하고 있다. 지권인은 왼손 검지를 세워 오른손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지만 고려, 조선시대에는 이 불상처럼 지권인의 변형인 拳印을 한 경우가 발견된다. 낮은 무릎 높이,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모습은 조선 후기 불상과는 구별되고 있으며, 麗末鮮初 불상의 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육계의 반달형 中間髻珠와 내의를 묶은 띠매듭도 주목된다. 띠매듭은 16세기 이후 불상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특징을 파악하기에 앞서 1456년(세조2)에 판각된 복장 달라니를 비롯하여 1894년(고종31) 중수 및 1908년(순종2) 개금된 복장 발원문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1.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달라니



도 4.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달라니, 1456, 27×40cm, 월정사박물관, 필자 촬영

45) 탁효정, 앞의 논문, pp.210~211.

46) 문화재청, 앞의 회의록, 2018, p.61.

중대 사자암 복장 다라니는 목판 간행본으로 1매가 전한다. 중앙의 두 佛印을 중심으로 향우측과 하단에는 18종의 부적과 효능, 향좌측 상단에는 다음의 발문이 실려 있다.(도 4)

隨求一字 功德極神	수구다라니 한 글자로도 공덕이 지극히 신비하고
又集靈呪 刊施無窮	더욱이 이를 모은 영험한 주문은 간행 보시 무궁하다.
奉持惟簡 冥資悉均	받들어 지님 간단하고 균등히 명계의 자량 되어
決無災難 何患沉淪	결정코 재난 없애리니 어찌 고해에 빠짐을 걱정하겠는가.
願將密護	원컨대 은밀히 보호하여
聖上	성상께서는
遐齡祥凝 四筮慶洽	장수하시고 상서로움이 모여 사방이 경축하며
朝廷	조정에서는
康彞之暇 咸悟無生	평화로운 여가에 모두 무생법인을 깨달으시며
廣資恩有 令出火坑	널리 돕고 은혜를 베풀어 불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景泰丙子夏 比丘 信眉 學悅	경태 병자년(1456) 여름 비구 신미 학열
施主 永嘉府夫人 申氏 永順君 阿技 李氏 ⁴⁷⁾	시주 영가부 부인 신씨, 영순군, 아기 이씨 ⁴⁸⁾

이 복장 다라니의 시주자는 세종의 다섯째 왕자인 廣平大君 李璵(1425~1444)의 부인인, 永嘉府夫人 申氏 慧圓과 그의 외아들 永順君 李溥(1444~1470), 그리고 곧 태어날 영순군의 아기 이씨이며,⁴⁹⁾ 信眉(1403~1480)와 그의 제자 學悅(15세기 활동) 대사가 1456년(세조2) 간행하였다. 발문에는 이 다라니를 지니기만 해도 재난과 고난이 없어지며, 성상(세조)은 상서로움이 사방에서 모여 경축하고, 조정은 무생법인을 얻고, 영가께서는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영가는 아마도 19세의 나이로 요절한 남편 광평대군일 것이다. 왕이 언급되는 부분인 “聖上” 글자는 고대 書式에 따라 글꼴을 달리하고 다른 행보다 높게 올려 썼다.

광평대군부인 신씨는 광평대군이 죽기 5개월 전 아들 영순군을 낳았으며, 남편이 사망하자 묘소 근처에 齋庵인 見性庵을 짓고 비구니가 되었다. 광평대군부인 신씨는 『묘법연화경』(1459, 일본 西來寺 소장)⁵⁰⁾ 및 견성암 약사삼존불상(1456) 등 다수의 불사에 관여하였으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70, 보물), 『地藏菩薩本願經』(1474) 등은 세조비 정희왕후와 함께 내수사 경비로 간행했다.⁵¹⁾ 또한 광평대군부인 신씨는 신미와 김수온 형제와도 친족관계였기

47) 이 발문은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諸佛羅尼(1375)에 실린 발문 중 “隨求一字功德極神”, “奉持 惟 簡冥資 悉均沈 無災難 何患沈淪” “主上 遐齡祥凝 四筮慶洽 朝廷 康彞之暇 咸悟 無生廣資 恩 有舍出火坑”을 인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상련(정각), 김연미,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106, 2023, pp.173~174.

48) 탈초 및 번역은 이종수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49) 1444년 세상을 떠난 광평대군과 영가부부인 신씨 사이에 태어난 영순군(1444~1470)은 김제군부인 전주최씨와의 사이에 장남 南川郡 李靖(1458~1519)을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다라니에 시주자로 阿技李氏가 기록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장남 이쟁의 탄생에 앞서 1456년에 임신을 하였고, 이에 무사 탄생을 발원하여 이 다라니를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다라니에는 “救産難符”, “能産印” 부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기 이씨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문상련(정각), 김연미, 앞의 논문, p.172.

50) 일본 서래사 소장 견성암 『묘법연화경』은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1459년 4월에 學悅 대사의 고증을 거치고 왕명으로 金守溫의 찬문을 받아 간행되었다. 발문에 의하면 주석이 없는 無註本 『法華經』을 간행했고 궁궐에 있던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學悅이 교감한 것을 판각하여 간행했다고 한다. 문명대, 「西來寺 소장 1459년 견성암 간(刊) 묘법연화경 영산회상도 판화 연구」, 『강좌美術史』 43, 2014, pp.363~367.

51) 한희숙, 「조선 초 廣平大君家の 佛教信行과 왕실불교」, 『한국사학보』 79(고려사학회, 2020.5), pp.165~172. 원래 광평대군의 齋庵으로 창건되었던 견성암은 현재 강남구 삼성동 修道山 奉恩寺로

에 다수의 불사에 관여할 수 있었다.⁵²⁾ 이 사자암 복장 다라니 발문을 작성한 이도 바로 신미와 학열이며, 사자암 복장 다라니와 같은 해인 경태 7년 9월에는 견성암 약사삼존불상(1456)이 화원 李重善에 의해 제작되는데, 발원문에는 신미의 발문과 대공덕주 광평대군 부인 신씨혜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⁵³⁾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복장 다라니, 1456, 27×40cm, 필자 촬영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 복장 다라니, 1456, 34×46cm, 필자 촬영
 淡晶이 중간한 다라니, 1579 간행, 원각사 소장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도 5. 2종의 佛印과 18종의 부적이 새겨진 복장 다라니

사자암 복장 다라니와 같은 발문과 형식을 갖춘 복장 다라니는 2건이 더 전한다.(도 5) 조선 전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불 복장 다라니는 사자암과 거의 같은 목판본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⁵⁴⁾ 1579년 淡晶이 중간한 다라니는 『大明仁孝皇后夢感佛說第一希有大功德經』의 다라니가 더해졌다. 이로 보아 당시 복장 물목 납입품으로 이러한 다라니가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복장 다라니의 중앙에 있는 두 佛印(dharma mudra)은 좌측 ‘아미타인’으로서의 「佛頂心印」, 우측 ‘om(唵)’을 형상화한 「三身印」으로서의 「毘盧遮那印」이다. 이 두 불인은 仰蓮의 연꽃과 子房 위에 놓여 있으며, 불인 주위로는 범자가 원형 광배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위에는 연잎 형태의 天蓋가 두 불인을 덮고 있으며, 사방에는 사천왕의 종자가 배치되어 있다.⁵⁵⁾

위와 같은 조선시대 복장 다라니의 연원은 고려시대로 올라가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불좌상(1268년 개금) 범자다라니(1239년 간행), 고려 고종대의 권신 崔瑀(1166~1249)를 위해 목판으로 간행된 『梵書摠持集』(1227), 宋英이 간행한 다라니(1313)⁵⁶⁾ 및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

추정되고 있다. 견성암 관련 기록은 실록과 金守濶의 문집인 『拭疣集』에 전한다. 견성암은 1494년(성종25) 연산군이 광평대군의 묘를 이장하고 성종 능인 선릉을 조성함에 따라 견성사는 왕릉의 능침사가 되었다. 강호선, 「조선전기 왕실원찰 見性庵의 조성과 기능」, 『서울학연구』 59, 서울시립대학교, 2015, pp.5~30.

52) 고려 말 예문관 대제학과 이조판서를 지낸 李行의 딸이 金守濶의 어머니였고 이행의 손자인 李孜의 딸이 광평대군부인 신씨의 사촌 오빠 申允範의 부인이었다. 이자의 부인은 양녕대군의 딸로 광평대군과 사촌간이다. 신윤범의 부인 이씨는 신씨와는 시댁의 사촌 올케가 된다. 따라서 사촌 올케의 할아버지의 여동생, 즉 대고모의 아들이 바로 신미와 김수온이 된다. 이들은 혼인관계를 통해 가까운 친족이 되었다. 한희숙, 앞의 논문, pp.175~176.

53) “大功德主, 比丘尼永嘉府夫人 申氏慧圓.” 장충식, 「景泰七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考古美術』 138-139, 한국미술사학회, 1978, pp.45~46; 유대호, 「조선 전기 도갑사 불상군의 특징과 제작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0, 미술사연구회, 2021, pp.180-184; 강삼혜,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티베트계 명 양식 불상과의 비교 연구」, 『강좌미술사』 60, 한국미술사연구소, 2023.

54) 유근자,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의 복장 기록 분석」, 『선문화연구』34, 2023, pp.195~198

55) 문상련(정각), 「불인과 탑인의 한국수용과 전개-부처님 현존과 감응의 회귀-」, 『미술과 초자연, 벽사길상 주술 영험』, (사)동양미술사학회 2023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집, 2023, pp.23~44. 佛印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이자, 궁극의 三法印을 말하는 것이며, 부처님 현존을 상징하는 증표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자암 복장 다라니에 대해서는 위 논문 외에도 옥나영, 이종수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상(1346) 복장 『大華手經』 등의 범자 다라니에서 불인과 부적이 포함된 고려시대 예들이 있다. 『대화수경』에 실린 불인의 경우, 불인 도상 밑에 “佛頂心印”이라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불좌상 복장 「불정심인」 다라니(도 6)는 불인 상단 좌우로 “阿彌”와 “陀佛”이 새겨져 있고, 밑으로는 “觀世音菩薩” “大勢至菩薩”이 새겨져 있다. 이로 볼 때 「불정심인」은 아미타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1388년 불상 중수시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정심인」 다라니(도 7)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다라니가 기록되어 있으며, 내부의 연화좌 위에 같은 「佛頂心印」을 두 번 새겼다.⁵⁷⁾



도 6.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불좌상 복장 불정심인 다라니, 고려 1301, ©김보민 석사 논문 89쪽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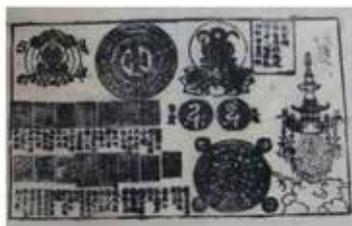
도 7.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불정심인 다라니, 조선, 38x39.8, 서울사유형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재청



도 8.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 복장 전적, 제다라니 권수 변상도 및 부분, 15세기 추정(고려 우왕원년 1375 목판을 재간행). 해인사성보박물관 ©문화재청

「불정심인」 1종이 간행된 도 6, 7과 달리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에서 수습된 원당암 복장전적 「제다라니」(도 8)에는 서로 다른 2종의 불인이 새겨져 있는데, 불인 밑에 실린 내용 중 “대불정 연기를 간략하건대[大佛頂緣略], 왼쪽은 万行에 해당하고 오른쪽은 涅槃에 해당한다. 1은 비로자나, 2는 문수, 3은 보현에 해당한다. 4는 三寶를 총섭함이고 5는 시방의 일체 모든 성현들이 모두 모여 설법함을 뜻하고, 6은 도량을 뜻한다. 범서 ‘唵’자를 차서 지나거나, 집안과 밖의 주련에 걸면 일체 악한 귀신들이 모두 침범하지 못한다.”에서 이 불인은 ‘唵’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산서성 廣勝寺 비로전 壁碑에 새겨진 불인에서 보듯이 唵의 종자가 형상화된 三身印이라 칭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비로자나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⁵⁸⁾

복장 다라니(2종의 佛印과 塔印, 18종의 부적)



도 9.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복장 묵인 다라니, 범자제불상주 다라니, 1447 또는 이전



도 10.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 1458, 46.6x50cm ©국립대구박물관



56) 신소연,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 보고서 2』, 국립중앙박물관, 2016, p.240.

57) 문상련(정각), 앞의 논문 p.42.

58) 문상련(정각), 앞의 논문 pp.42~43.

2종의 불인은 15세기 후반 이래 다시 塔印이 추가되는 등 다양화된다. 2종의 불인에 塔印이 추가되는 예를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범자제불상주 다라니(1447년 또는 이전, 도 9)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도 10)에서 볼 수 있다.

파계사와 흑석사 다라니 모두 2종의 불인과 1종의 塔印, 만다라와 원형 다라니 각 1종 및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인은 「불정심인」과 「비로자나인」으로, 「비로자나인」 좌우에는 문수, 보현의 존명이 적혀 있다. 塔印은 경주 석장사지 연기법송 塔상문전이나,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다라니,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불 복장 다라니 등에서 이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파계사 목인다라니(도 9)에 새겨진 塔印은 상서로운 구름 위의 연화좌가 塔신을 받치고 있고, 보주형 塔신 안에는 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塔신 위로 곡선과 같이 휘어진 1층 지붕 처마의 드림 장식과 2층의 육각 지붕 위를 장식한 상륜 장식 등이 보인다. 흑석사 복장 다라니(도 10)에 표현된 塔은 화염광배에 감싸인 고준한 7층탑으로, 각 층마다에는 삼신불이 봉안되어 있고, 기단부 양옆으로 범자 모양의 장식이 광배를 받치고 있다. 파계사 목인다라니에는 “범자는 제불의 상주 설법도량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現前에 예배하면 모두 成佛하리라.”⁵⁹⁾라고 하여 범자는 여러 부처가 설법하는 도량으로 공간성을 지니며, 또한 부처와 같이 예배를 받는 성물임을 알 수 있다.

적멸보궁은 석가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과 拜殿을 함께 지칭한다. 적멸보궁 배전 뒤로 흠뚨가 시작되는 지점에 놓인 작은 석비는 배전 어칸 문 위에 “世尊眞身塔廟”라고 쓴 편액이 달려 있어 이 석비의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⁶⁰⁾ 석비는 앞면에는 5층탑 부조상이 있고, 그 뒷면에는 「불정심인」이 새겨져 있다.(도 11) 5층탑 부조상은 탕주가 새겨진 단층기단 위에 오층의 塔신부와 상륜부가 표현되어 있다. 「불정심인」은 양련의 연화좌로 추정되는 대좌 위에 놓여 있으며 원형 광배가 불인을 감싸고 있다. 불인 사면에는 사천왕 종자를 배치하였다. 불인 위에는 연잎 형태의 천개가 표현되었다. 불인은 복장 다라니처럼 종이에 간행되기도 하지만 남원 勝蓮寺 「불정심인」처럼 바위 면에 새겨지기도 하며, 양주 회암사 및 화순 운주사 암막새 등과 같이 기와에도 등장한다.⁶¹⁾ <사료 1>의 『오대산사적』 「제1조사전기」에서 오대산 중대 지로봉에 올라 가라허에 佛腦와 頂骨 사리를 봉안하고 事蹟을 적은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오대산사적』이 쓰여진 1307년 당시에는 사적비는 사라졌다고 하고 다른 비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의 세존진신탑묘비는 그 이후에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塔묘비에 새겨진 「불정심인」은 시각적으로 정골을 의미하며, 불인 위에 연꽃 모양의 천개가 덮힌 형태는 1456년 사자암 비로자나불 복장 다라니의 「불정심인」(도 12)과 유사하며, 상부의 사천왕 종자의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인과 함께 塔印이 추가된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복장 다라니(1447년 또는 이전, 도 9)나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1458, 도 10),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 황초폭자 塔印 등의 제작 시기도 감안하면 「불정심인」과 塔印이 새겨진 이 세존진신탑묘비도 15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⁶²⁾ 양식과 더불어 “寶宮”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사료 3>

59) “梵字 諸佛常住說法道場 若人 現前禮拜即 皆有成佛” 문상련(정각), 앞의 논문, 2023.6, p.48.

60) 이 석비는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漢若스님(1876~1951)이 찾아 다시 세워놓은 것으로 전한다.

61) 남원 勝蓮寺의 육자진언과 「불정심인」 제작 시기는 15세기 남양주 水鍾寺 銅鍾이나 腹藏物로 봉안된 「白紙墨書諸眞言」의 육자진언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며, 1569년 重刊된 安心寺 重刊 『諸眞言集』 보다는 이른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엄기표, 「남원 勝蓮寺 마애 범자진언의 조성 시기와 의의」, 『선문화연구』18, 2015, pp.405~406. 「불정심인」의 다양한 사례는 엄기표, 「寶珠形 唵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14, 2013, pp.344~356 참조.

62) 엄기표 역시 「불정심인」 도상이 上下로 세장해지며, 외곽부가 화려해지고 사천왕 종자가 새겨지는 점, 상부의 花紋 문양과 하부의 연화받침대와 구름 문양이 추가되는 점 등은 고려와 다른 조선시대

「조선조 본산 사적」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조는 1466년 상원사 낙성을 위해 오대산을 방문했다가 태상왕이 중창한 “寶宮”을 참배하는데, 이를 계기로 보궁 앞에 이 세존진신탑묘비를 건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탑묘비의 「불정심인」과 「탑인」의 양식이 세조의 방문 시기인 1466년과 부합되기에 가능한 추측이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탑인”과 부처님이 현존함을 상징하는 “불인”을 새긴 세존진신탑묘비(도 11)는 적멸보궁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보궁 아래 사자암에는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여 부처의 진신과 불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판테온을 완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

도 11.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世尊眞身塔廟碑, 높이 81cm ©월정사, 문화재청, 탑본 엄기표 논문에서 전재



(뒤)



도 12.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 복장 다라니의 불정심인, 1456, 월정사성보박물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다라니(도 4) 발문 첫 행에, “수구다라니 한 글자라도 공덕이 지극히 신비하고 더욱이 이를 모은 영험한 주문은 간행 보시 무궁하다.”라고 한 내용에서도 있듯이, 수구다라니는 오대산 신앙과 관련하여 빠트릴 수 없는 자료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및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 <사료 2> 『오대산사적』의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이하 「신라 태자전기」)에 수구다라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보질도태자는 아우 효명이 왕이 되어 오대산을 떠난 후 울진 장천굴로 들어가 수구다라니를 독송하여 이에 감화받은窟神에게 보살계를 내리고, 다시 오대산 신성굴로 돌아와 50년간 수행하니 도리천의 신들이 법문을 들으러 내려오고, 청거천의 신들이 차를 올렸다고 하며, 어느 날에는 문수보살이 이마에 물을 붓고 成道記笈을 받았다고 전한다. 신라 자장의 오대산 신앙은 문수가 중심이었다면, 신라의 왕자인 보질도(보천)는 『隨求陀羅尼經』을 염송한 이후 오대산 각 대에 체계적이고 심오한 화엄의 체계를 구현하여 비로자나와 문수가 거주하는 중대를 오대산 신앙의 중심으로 정립한 것을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3> 오대에 현신한 진신과 오대산 화엄신앙

구분	A. 『삼국유사』 「대산 오만진신(臺山五萬眞)」		B. 『삼국유사』 「명주 오대산 보질도태자전기」,		C. 『오대산사적』 「오대산의 성적聖跡과 신라 정신태자, 효명태자의 전기」,	
東臺	1차	滿月山 1만 觀音眞身	靑 滿月山 觀音眞身1만		阿闍如來를 首位로 하는 1만의 觀音	
	2차	觀音房 (圓通社) 圓像 觀音, 靑地畫 1만 觀音	-		觀音房 (圓通社) 圓像 觀音, 靑地畫 1만의 觀音	

15세기 중후반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엄기표, 앞의 논문, 2013, pp.359~362.

南臺	1차	麒麟山	八大菩薩을 首位로 1만의 地藏	赤	麒麟山	八大菩薩을 首班으로 1만의 地藏		八大菩薩을 首位로 1만의 地藏
	2차	地藏房 (金剛社)	圓像 地藏, 赤地畫 八大菩薩을 首位로 1만 地藏		-		地藏房 (金剛社)	圓像 地藏菩薩, 赤地畫 八大菩薩을 首位로 1만의 地藏
西臺	1차	長嶺山	無量壽如來를 首位로 1만의 大勢至	白	長嶺山	無量壽如來를 首班으로 1만의 大勢至		無量壽如來를 首位로 1만의 大勢至
	2차	彌陀房 (水精社)	圓像 無量壽, 白地畫 無量壽如來를 首位로 1만의 大勢至		-		彌陀房 (水精社)	圓像 無量壽, 白地畫 無量壽如來를 首位로 1만의 大勢至
北臺	1차	象王山	釋迦如來를 首位로 5백 大阿羅漢	黑	相王山	釋迦如來를 首班으로 5백 大阿羅漢		釋迦如來를 首位로 1만 彌勒菩薩과 5백 大阿羅漢
	2차	羅漢堂 (白蓮社)	圓像 釈迦, 黑地畫 釈迦如來를 首位로 5백 羅漢		-		羅漢房 (白蓮社)	圓像 釋迦, 黑地畫 釋迦如來를 首位로 1만 彌勒菩薩과 5백 大阿羅漢
中臺	1차	風廬山 (地廬山)	毘盧遮那 首位로 1만의 문수	黃	風廬山 (地廬山)	毘盧遮那 首班으로 1만의 文수.		毗盧遮那佛如來를 首位로 1만 文수
	2차	眞如院(華嚴寺) 寶泉庵 “華藏社”로 改創 文殊岬寺 * <표 1> 참조			-		眞如院(華嚴結社) 寶吐徒房 “華嚴寺”로 改名 文殊岬 * <표 1> 참조	

<표 3>에서는 오대산 동대에 관음, 남대에 팔대보살과 지장, 서대에 미타와 대세지, 북대에 석가와 오백아라한, 중대에 비로자나와 문수보살이 현현한 내용과 각대에 예배상과 예배화를 봉안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다. 1차는 두 태자가 오대산으로 들어와 함께 수행하면서 오대의 각 산에 현신한 오만보살의 진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고, 2차는 효명이 왕이 되어 떠나고 보질도태자가 울진국 장천굴에서 『수구다라니경』을 염송하여 窟神을 감화시킨 후 다시 오대산으로 와서 50년 동안 수도한 이후인 755년경으로, 각 대에 암자를 창건하여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고 낮에는 경전 독송, 밤에는 예참문을 염송하며 별도의 結社를 조직하는 내용이다. 2차 시기에서 A의 『삼국유사』에서는 보질도태자, C의 『오대산사적』에서는 성덕왕(효명)이 주체자로 등장하여 약간 혼란스럽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수구다라니경』의 등장일 것이다. 보질도태자가 50년간 이어간 수행방법으로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에서 모두 유일하게 언급한 경전은 『수구다라니경』으로 이를 밤낮으로 독송함으로 인해 울진 장천굴의 窟神으로 대변되는 토속신앙을 조복시키고⁶³⁾ 오대산 화엄신앙 신앙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63) 장미란, 「신라 오대산신앙체계의 변용배경과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44, 2020, p.168, p.176. 장미란은 寶思惟 역본의 『수구다라니경』이 중기밀교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成佛보다는 국가 결속력, 민심 규합 등의 신앙적 측면이 강하며, 이는 오대산 진신 신앙에 투영되며, 주술 형태는 산신과 같은 토속신앙과 큰 마찰 없이 정착되고 이를 포용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대산 신앙체계가 『화엄경』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낮에는 독경, 밤에는 예참으로 나누어 행하는 형식이 중국과는 다른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이었음을 『입당구법순례행기』(開成4.11.16.)의 적산법화원에서의 법회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820년에 세운 在唐 신라인들의 사원이다.

64) 수구다라니와 관련하여 동일신라 유물로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는 2종의 수구다라니와 經盒이 경주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이 수구다라니는 탑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693년 寶思惟가 한역한 『佛說隨求即得自在在阿羅尼神呪經』의 진언이 범자와 한자로 서사되어 있다. 한정호, 「경주 남산의 사리장엄구」,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어제와 오늘』 (세계문화유산등재 20주년 기념

고려시대 복장물로서의 수구다라니의 첫 사례인 광주광역시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수구다라니(도 13)에서는 도상이 원형으로 변모되며, 복련의 연화대좌 위에 33개의 법구와 삼중 원형 안에 右膝着地한 보살상이 배치된다.⁶⁵⁾



도 13. 광주광역시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수구다라니, 1184 인출, 33.5x34.5cm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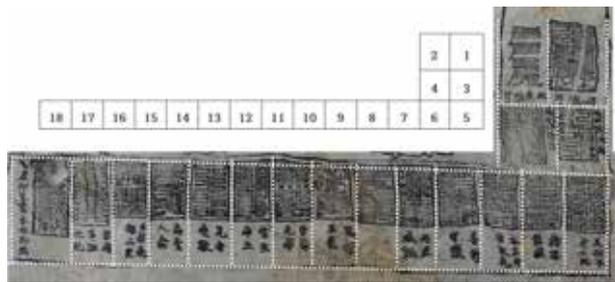


도 14. 해인사 원당암 절첩 수진본 다라니경 발원문, 1375, 7x459.8cm ©문화재청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경(1375년, 도 14)에는 권수 변상도 다음에 隨求即得諸呪라는 제목에 이어 朴免이 쓴 발원문이 제시되었다. 발원문에서도 수구다라니를 언급하고 있는데, “수구다라니를 얻어 성불에 이르고자 함에 마침 이 진귀한 글을 구할 수 있어, 이에 신령스러운 주를 모아 간행하여 모시고, 오직 진리를 간직하여 재난을 당하거나 우환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어서 ‘開法藏呪’와 成佛隨求大陀羅尼, 隨求陀羅尼心呪를 비롯해 40여 개의 다라니, 여러 부적이 이어진다.⁶⁶⁾ 여러 다라니 중 수구다라니를 맨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아 어느 다른 다라니보다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3.破地獄生佛國	2.救產難符	1.避熱符
6.諸罪能滅	5.萬劫不受生死	4.滅罪成佛果
9.所望成就	8.善神守護	7.吞且持者放光
12.當得見佛	11.鬼神不侵	10.
15.爲貴人念	14.見者密敬	13.當生淨土
18.能產印朱書吞之即出	17.能避爭訟之厄	16.自然遠離三灾



<표 4>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 복장 다라니 부적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복장 다라니에 실린 18종의 부적은(도 4, 표 4)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경에 실린 18종의 부적과 순서만 달리하여 차용한 것으로, 조선

학술대회 발표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미술사학회, 2020, pp.140~145.

해인사 묘길상탑지 중 「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際記」에도 탑 안에 납입된 경전과 불사리, 소탑 등이 기록된 목록 중 『無垢淨大陀羅尼經』 1권, 『法華經』 1부, 『淨名經』 1부에 뒤이어 「隨求即得自在陀羅尼」가 포함되어 있어 신라에서 8~9세기에 걸쳐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55 도1~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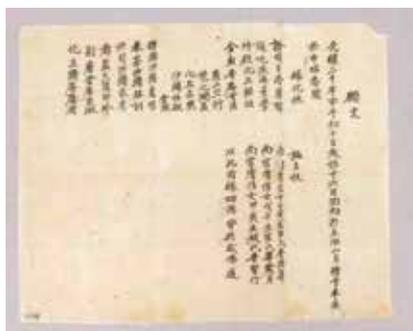
65) 자운사 이후 2007년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수구다라니가 발견되었다. 2017년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는 수구다라니가 인쇄되어 있는 절첩 수진본 다라니경이 발견됐다. 이밖에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에서 수구다라니가 발견되었으며, 리움미술관의 수구다라니 등이 전한다. 옥나영,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53, 2016, pp.147~174;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309, 한국미술사학회, 2021, pp.5~39.

66) 남권희,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小字 총지진언집 연구」, 『서지학연구』71, 2017, pp.344~350;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42.

초기에 사용된 불교 부적은 대부분 고려시대 해인사 원당암, 「제다라니」(도 8, 14)에 실린 부적이 주류가 되고 있다.⁶⁷⁾ 부적은 바라는 소망을 새겨 항상 잊지 않고 지님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불인과 탑인 등과 함께 실려 있는 조선의 부적은 『수구즉득다라니경』에서 경을 서사하고 지니는 것에 대한 공덕을 강조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듯하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다라니와 진언, 부적 등과 관련된 중앙 부서가 존재했다. 고려 불복장 다라니 중에는 임시기관인 僧齋色 명이 종종 등장하는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불좌상 보협인 다라니(1239)를 비롯하여, 서산 문수사 금동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1287년 승재색에서 판각한 『대화수경』, 1288년에 판각된 보물 『묘법연화경』 권7 및 1302년 아미타불 복장(은양민속박물관) 「보협인다라니」(1292 추정) 등이 있다. 불상의 중수와 불교 제의를 담당하는 관청명인 승재색은 고려 후기 13세기 말부터는 다수의 불복장 의례가 승재색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국가기관의 주관과 감독하에 복장 의례는 체계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⁶⁸⁾ 조선 초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經師僧이 천문과 지리 등을 관장하는 觀象監에 속하여 부적, 독경, 祈雨 등을 담당하였다.⁶⁹⁾

2.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 및 개금 발원문



도 15.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중수발원문, 1894, 30×36cm, 월정사박물관
©월정사박물관

願文
光緒二十年甲午初十日起始十六日回向於五坵山
月精寺奉安於中坵香閣



도 16.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개금발원문, 1908, 50×29cm, 월정사박물관
©월정사박물관

同時改金尊像座目
中臺獅子庵 毘盧遮那佛一位 上院僧堂
釋迦牟尼佛一位 上院大雄殿 阿彌陀佛一位 身佩上

67) 문상련(정각), 김연미,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106, 2023, pp.158~209.

68)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30(2008.2), pp.116~119;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p.272~273, 각주 6번 참고. 최성은 '色'은 나라에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관청으로 도감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며, 僧齋色을 충렬왕(재위년, 274~1298) 무렵에 설치된 경전의 간행, 사찰의 중수, 불상의 개금과 보수, 불교 제의 등을 담당했던 관부로 추정했다.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물 중 아미타불상중수 봉합판의 修補墨書銘에 의하면 1280년에 불사를 위해 僧齋色의 주관 하에 불상의 보수가 이루어졌다.

69) 문상련(정각), 김연미, 앞의 논문, p.189. 『세종실록』 세종6년(1424) 8월 기사에 의하면 經師 가운데 중앙에는 上經師와 副經師 등이 있었고, 상경사는 정3품, 부경사는 정·종4품, 경사는 정·종7품 정도의 품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방에는 정·종8품에 해당하는 外方官經師와 정·종9품의 경사 등이 파견되었다.

緣化秩
 證明日峰璟郁」誦呪泳海景學」持殿比丘鎰性」
 金魚普庵肯法」蕙山竺衍」梵化潤益」
 比丘昌照」沙彌性敏」雲照」鐘頭沙彌惠明」
 奉茶沙彌啓訓」供司沙彌永秀」都監大隱昨珍」
 別座雲庵東琳」
 化主濟庵應荷」
 施主秩」
 尙宮清信女壬寅生申氏普德華」
 尙宮清信女戊午生崔氏華藏月」
 尙宮清信女甲寅生趙氏普賢行」
 以此因緣功德皆共成佛道」

觀世音菩薩一位」文殊菩薩一位」文殊童子一位」
 東臺」觀世音菩薩一位」大寺東別堂」觀世音菩薩一位
 此尊爲主」上院大雄殿」身佩座珞」
 緣化所」
 證明水月音觀」錦溟印文」焦友定歇」晴湖學密」
 應海三愚」智光滿應」持殿比丘龍翼」誦呪聳峯妙根」
 金魚片手虎峯性煜」豐谷義法」雲潭宜荷」寧隱法眼」
 比丘道燁」信士蕙山」奉茶沙彌永悟」
 鐘頭比丘文昨」供司比丘慧眼」淨桶比丘互玄」
 別供沙彌奉胤」別座比丘東日」都監護林奉仁」
 山中大德」鏡潭善眞」
 三綱
 首僧文昨」摠攝松虎莊璇」書記 滿船
 施主秩
 尙宮張氏妙心花」尙宮金氏淨德行」宮鄭氏大德花」
 尙宮李氏普光明」信士韓氏增長」信女崔氏大慧心」

隆熙二年戊申五月十五日改金奉安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조선 말기 중수와 개금이 이루어졌다. 1894년(고종31)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중수는 금어 普庵肯法, 蕙山竺衍, 梵化潤益으로, 근대기 畫僧 세 명과 비구니 사미 등이 참여했으며, 상궁 세 명의 시주로 이루어졌다. 1908년(순종2) 개금불사는 네 명의 상궁 등의 지원으로 수화승 虎峯性煜 등 총 여섯 명의 화승이 동참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불상 제작 수요가 줄어들면서 화승이 불상을 만들거나 중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자암 중수발원문(도 15)에 기록된 금어 세 명도 모두 화승이다. 당시 비로자나불상 중수는 같은 해 사자암에 불화를 봉안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봉안된 불화는 석가모니 불화로 화기에는 제작에 참여한 화승으로 보암금법과 비구 두 명의 이름만 있고 사자암(향각) 비로자나불상 복장 중수발원문에 있는 축연과 윤익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화승 금법은 19세기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던 남양주 흥국사의 隱峰信瓊의 법맥을 계승한 慶船應釋(應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사자암 석가모니불화는 금법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초기 작품이다. 같은 해 梵化潤益과 함께 중대 사자암 신중도도 제작했다.

화승 축연은 평양 영천암의 性雲에게 배웠으며, 19세기 후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금강산 유점사 화승으로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이름을 알렸으며, 양산 통도사 16나한도에 서 보듯이 금강산 관광업서의 이미지를 불화에 차용하는 등 개항장을 통해 들어오는 문물을 수용하였다. 또한 풍속화나 혁필화를 그려 외국인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등 근대기 변모된 화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윤익은 같은 해 중대 사자암(향각) 신중도를 수화승이 되어 금법과 性敏⁷⁰⁾과 함께 제작한다. 같은 해 석가여래도와 신중도를 제작하면서 후불탱인 석가여래도는 보암금법이, 중단탱인 신중도는 제자인 윤익이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축연은 불상 중수문에만 이름이 올려져 있어 불화 작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금발원문(도 17)에는 사자암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개금된 전각별 존상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두 복장 중수 및 개금 발원문에서는 같은 전각을 향각과 사자암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3.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도상 특징

70) 1894년 사자암 중수발원문에 금어로 이름이 올라간 沙彌性敏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은 현재 월정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17) 38cm의 작은 크기인 이 불상은 智拳印 수인을 짓고 있으며, 낮은 육계에는 중간계주가 커다랗게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손 뒤에는 띠매듭으로 묶인 내의가 보이며,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는 부견의 위로는 대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고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겨졌다.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이러한 도상 특징을 수인과 중간 계주, 승각기 띠매듭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도 17.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400년경, 높이 38, 무릎너비 32, 폭 25.5cm, 월정사박물관 ©월정사박물관

(1) 수인

이 불상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수인이다. 일반적인 지권인의 모습은 검지를 다른 손의 네 손가락이 감싸 진 형태라면 이 불상의 수인은 통상적인 지권인이 아닌 拳印으로, 왼손이 주먹 쥔 오른손을 덮어버린 형태이다. 그러나 광해군비 장열왕후가 발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 소장번호 구10416)이나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36) 등과 같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권인의 모습과 달리 손가락을 편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가 맞대어 지그시 누르고 있는 형태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⁷¹⁾

이러한 변형 권인은 중국 불상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국 산서성 진중 자수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금대), 동시대인 산서성 대동 선화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금, 1128년, 도 18-1)에서 이러한 수인이 등장하여, 원대 광승사 상사와 하사의 비로자나불좌상(원 1309), 명대 산서성 쌍림사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좌상(도 18-2), 태원 다복사 및 평요 진국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도 18-3, 4) 등에서 이러한 수인이 나타나 있다.⁷²⁾



대동 선화사 대웅전 비로자나불좌상, 금 1128, 필자 촬영



평요 쌍림사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명대 초기, 필자 촬영



태원 다복사 대웅보전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명 1458 혹은 1469 추정, 필자 촬영



평요 진국사 삼불루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명대, 필자 촬영

71) 불교중앙박물관, 『法, 소리없는 가르침』(불교중앙박물관 개관1주년기념특별전), 2008, p.123.

72) 심주완, 「동아시아 삼불상 도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p.263~264.

도 18. 검지를 펴서 맞댄 권인 수인(중국 산서성 금~명대 초기 불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견희 기증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입수된 고려 불상에서 검지를 펴서 맞댄 권인의 초기 모습이 보인다.(도 19-3) 小金銅佛 중에서도 이러한 수인이 나오는데 1628년 남양주 수종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도 19-4)을 들 수 있다.⁷³⁾ 사자암 상 수인과는 반대로 오른손 검지가 위로 올라와 있다. 수종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바닥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선조의 계비 仁穆大妃(1584~1632)가 발원하여 화원 性仁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⁷⁴⁾ 검지를 강조한 이러한 권인은,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도 19-1, 2)에서도 등장한다.⁷⁵⁾ 검지를 강조한 사자암 상의 수인의 시원은 이처럼 고려 비로자나불상과 사경변상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금원명대 불상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월정사박물관

대방광불화엄경권47
변상도, 고려, 국립중앙
박물관(덕수1977)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고려,
높이 60cm, 국립중앙박물관
(건희3062)

남양주 수종사 금동비로자나
불좌상, 성인, 1628, 높이
10cm, 불교중앙박물관

도 19. 검지를 펴서 맞댄 권인 수인

중대형 불상으로는 마곡사 대광보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하여 17세기 無染이 제작한 대형 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변형 권인의 수인을 볼 수 있다. 마곡사 상(도 20-1)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 전기로 제작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⁷⁶⁾ 마곡사 사적기인 「華山麻谷寺事案」과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에는 조선 성화연간(1465~1487) 세조가 마곡사에 행차하여 어필로 “靈山殿” 액호를 써서 하사한 기

73) 수종사 상은 자세히 보면 왼손 검지는 펴지 않은 채 오른손 검지만 구부려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권인 부류로 묶일 수 있다.

74) 性仁은 평창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1466)을 개금했던 釋俊과 함께 1610년에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을 중수하였다. 광해군의 妃 章烈王妃(1576~1623)의 발원으로 1622년에는 玄眞을 수화원으로 하여 慈仁壽寺 불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1635년 화엄사 삼신불상 가운데 석가불좌상 조성에서 주자로 참여하였다. 수종사 금동노사나불좌상이 화엄사 삼신불상의 노사나불상처럼 보살형인 점에서 도상 면에서의 상호 연관을 보인다.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100, 2021, p.148.

75)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22, 2008, pp.93~94. 송은석 교수는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수인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오른손 검지만 구부려 세운 수인을 고려 말 사경변상도에 많이 등장하는 전통적인 형식으로 보았다.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상과 수종사 상의 권인을 같은 유형으로 묶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나주 불회사 상의 경우 검지 형태가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아 사자암 상의 수인과는 비교하지 않았다.

76) 고려 12~13세기로 추정하는 설은 최완수, 『명찰순례』2, 대원사, 1994, pp.141~142; 한상길, 흥대환, 『태화산 마곡사』한국의 명찰 시리즈, 활불교문화단, 2012, pp.44~46. 조선 전기로 보는 설은 문화재청,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남 대전광역시 자료집, 2004, pp.112~113; 허형욱, 「기록과 함께 보는 마곡사의 불교조각」,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국립중앙박물관, 2019, p.54 주)6 재인용.

록이 전한다. 마곡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역시 사자암 상(도 19-1)처럼 검지를 펴서 맞대고 있는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육계에도 頂上髻珠 없이 커다란 반달형 중간계주를 표현한 점은 매우 비슷하다. <사료 3>과 같이 1466년(세조12)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와 사자암에 행차하는데, 세조와 관련된 두 사찰에서 유사한 도상을 가진 불상이 봉안되어 있어 주목된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선 전기, 높이 193cm ©문화재청
 금산 대원정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조선 16세기, 높이 96cm ©불교문화재연구소
 고창 선운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무염, 1633~34, ©문화재청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1624~1633, 높이 313cm ©문화재청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무염, 1651, 높이 83cm ©문화재청

도 20. 검지를 펴서 맞댄 권인 수인(대형 불상)

금산 대원정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도 20-2)은 금산 태고사 극락전에 봉안된 본존불상과 함께 원래는 금산 신안사에 삼존으로 봉안되었던 불상으로,⁷⁷⁾ 경주 기림사 소조삼불상과 같이 모두 동일하게 통견의를 착용하고 있다.⁷⁸⁾ 기림사 상은 같은 사역에 있는 1501년 건칠보살반가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도 20-5)은 밑면에 기록된 목서를 통해 1651년(효종2) 무염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고, 시선을 아래로 두어 굽어보는 듯한 자세나, 네모지면서도 둥그스름한 얼굴, 균형이 잘 잡힌 안정적인 신체에 옷주름 표현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조각승 무염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7세기 조선 후기 불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⁷⁹⁾ 이로 보아 검지를 펴서 다른 손 검지를 맞대어 덮는 권인은 중국 명대 티베트 불상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7세기까지 이어진 독특한 수인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2) 계주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肉髻는 얼굴 크기에 비해 높지 않으며 중간계주가 반달 모양으로 비교적 크게 표현되어 있고, 정상계주는 없다. 정상계주 없이 중간계주가 커다랗게 표현된 도상은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1346, 도 21-3) 등 14세기 고려 후기 불상에서 유사한 도상이 다수 관찰된다.⁸⁰⁾ 문경 대승사 불상(도 21-2)의 경우는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지만 조선 전기 명대 티베트 불상의 영향을 받은 불상의 육계에 비하면 매우 낮다. 조선 15세기 중후반기 불상(도 22-3~5)은 명대 티베트 양식의 유입으로 뾰족한 육계 꼭대기에 계주를 표현한 정상계주 도상이

77) 김춘실, 「忠南 錦山郡 身安寺의 高麗末 塑造佛像-阿彌陀三尊과 毘盧舍那三佛-」, 『고고미술사론』, 충남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0, p.120; 심주완, 앞의 논문, p.263 재인용

78) 심주완, 앞의 논문, p.263.

79) 개금중수기(1861)에는 대둔산 안심사 심검당에 봉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후 어느 시기에 비래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화승 무염이 受法畫員으로 목서명에 표시되어 있다. 손영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Ⅱ』, 문화재청, 2017, pp.244~246.

80) 문명대,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樣式) 佛像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중심으로」, 『고문화』22, 1983, pp.33~71;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p.206~242.

많이 표현되므로,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중간계주나 육계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개운사 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좌상, 고려 1322년 이전(1274년 추정) ©문화재청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불좌상, 고려 14세기 초, 높이 182.6cm ©대고려전 도록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고려 1346년, 소실 ©문화재청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 고려 1346년, 높이 85.5cm
 금동아미타불좌상, 고려 14세기, 높이 82, 국립중앙박물관(본371) ©대고려전 도록

도 21. 고려 후기 14세기 불상 계주 표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월정사박물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선 전기, 높이 193cm ©문화재청
 금강산 은정골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 1451, 평양역사박물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이증선 1458, 높이 72cm, ©국립대구박물관
 강진 무위사 소조아미타불좌상, 1476 추정, 높이 142.0cm ©손영문

도 22.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 계주 표현

(3) 승각기 띠매듭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에서 보이는 내의를 묶은 승각기 띠매듭(도 23-6)은 조선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도상이다. 가슴 앞에 맺은 지권인 수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지만 사자암 상 띠매듭은 14~15세기 불상에 많이 보이는 띠매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슴에는 양감도 표현되어 있어 조선 15세기 중후반 불상들에서 보이는 밋밋한 가슴 표현과는 구별된다.

특히 사자암 상은 고려 후기 불상, 특히 14세기 중후반 불상들의 띠매듭과 유사하다. 이 시기에는 한두 예를 제외하고 모든 불보살상에 띠매듭이 반드시 표현된다. 주로 두 가닥의 띠로 리본 모양의 고리 매듭을 묶고 끝을 좌우로 내리거나, 매듭 고리 없이 묶기도 하며, 묶지 않고 몇 번 감아서 끝을 내리는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⁸¹⁾ 사자암 상은 지권인 수인으로 띠매듭이 가려져 있고 두터운 도금으로 인해 정확한 형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띠를 감아 훑쳐맨 방법으로 추정되며, 묶은 매듭으로 옷감 양쪽이 눌린 모습을 나비 모양 주름으로 표현하여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이러한 나비 모양처럼 옷감이 약간 눌린 듯한 표현은 고려 14세기 불상들에서 많이 보이며, (도 23-1~7) 15세기 후반 흑석사 상 등 조선 불상(도 23-8~10)에서 보이는 평판적인 띠매듭과는 차별된다. 조선 16세기로 넘어가면 이러한 띠매듭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띠매듭이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불상(1579)에서 보듯이 도식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81) 문명대, 앞 책, pp.232~233.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 12~13세기 대승사 금동아미타불, 14세기 초 추정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1346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1330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불, 1346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나주 심향사 건칠불, 여말선초 흑석사 목조아미타불, 1458 무위사 소조아미타불, 1476 추정 천주사 목조아미타불, 1482

도 23. 내의 띠매듭 표현(여말선초)

(4) 양어깨의 대의 주름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불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

도 24. 대의 옷주름 비교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대의 자락은 매우 독특하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살짝 접혀진 모습이 아니라 마치 종이를 접듯 납작하게 접은 듯하다.(도 24-2) 이러한 대의자락 표현은 많지 않은데, 하동 쌍계사 대웅전 건칠아미타불좌상과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에서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다.(도 24-1, 2) 두 상은 모두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되는 건칠불로, 이 두 상과 함께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역시 같은 전라권에 속하며 재질과 기법 및 크기, 양식 등에서 비교되고 있다.(도 25) 이 세 점의 건칠불은 고려 후기 양식을 계승한 조선 전기 15세

기로 추정된 바 있으며,⁸²⁾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상은 최근의 학술대회에서 고려 말기인 14세기 3/4분기에서 4/4분기로 넘어가는 1350년경의 불상으로 편년되었다.⁸³⁾ 또한 왼쪽 팔뚝의 Ω형 주름은 정형화된 세모꼴 모양으로 양주름이 맞닿아 있고 팔뚝에 표현된 대의 주름은 굽고 힘있게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양어깨의 대의 주름은 세련됨이 적고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주 죽림사 상은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대의 자락에 삼각형으로 접힌 주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명대 티베트 영향을 받게 되는 조선 15세기 중반 이후의 불상으로 추정된다.(도 26)⁸⁴⁾

82) 최은령, 「전북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연구」, 『문물연구』23, 2013, pp.59~85
 83) 문명대, 「하동 쌍계사 대웅전 고려 후반기(1350년경) 건칠아미타불좌상의 연구」, 『천년선찰 쌍계사의 불교조각』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57, 2023, pp.24~25.
 84) 강삼혜, 앞의 논문, pp.56~66.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불좌상, 고려 말기, 높이 154 ©심주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여말선초, 높이 121 ©문화재청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조선 초, 높이 114 ©문화재청

도 25. 고려 말 조선 초 건칠아미타불좌상과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비교

위와 같이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의 도상에 대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자암상 도상은 고려 14세기 중후반 ~ 여말선초 불상과 비교된다. 이 시기 불상의 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육계의 반달형 中間髻珠와 내의를 묶은 띠매듭, 고려 말 사경변상도에 많이 등장하는 검지를 펴서 맞댄 권인의 수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왕권교체기에 잠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어깨의 도식화되고 부자연스러운 대의 주름의 등장으로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을 규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IV.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의 양식 및 제작 시기 검토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은 중수기와 개금기만 전해지고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 시기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빈터로 남아 있던 사자암이 새롭게 중창된 연대가 1400년이고,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다라니의 연대는 1456년이므로 이 두 시기에 주목하여 사자암

불상의 양식을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의 나지막한 넓은 육계 중앙에는 14세기 고려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반달 모양의 중간계주(도 21)가 표현되어 있고, 이마의 백호와 더불어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으며, 콧등은 다소 높고 두툼한데 콧망울 등 세부 표현은 하지 않았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작은 입과 원만하게 부풀어 오른 양뺨에 부피감이 가미되어 온화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처럼 살이 오른 얼굴에 작은 입을 표현하는 상호 표현은 도 25에서 보듯이 여말선초 불상의 특징이다.

중대 사자암 상은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며, 어깨까지 내려온 귀는 얼굴에 균형감을 형성하고 있다. 귓바퀴의 기다란 연골 표현은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좌상(1458)과 같은 명대 티베트계 양식의 불상 귓불에서 보이는 작은 홈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며, 오히려 고려 개심사 상 등 고려 13세기 까지 올라가는 불상들과 비교된다.(도 26)



도 26. 귓바퀴의 연골 표현
①서산 개심사 상(1280 보수), ②중대 사자암 상, ③영주 흑석사 상(1458) ④경주 왕룡사원 상

불상의 대의는 오른쪽 어깨 위에 반달형 자락을 걸친 변형 편단우견으로, 이러한 대의 착용은 예산 천방사 금동여래좌상(도 29) 등 고려 중기 여래상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⁸⁵⁾ 천방사 상은 캔자스시티 넬슨 앳킨스 미술관 금동아미타불좌상(도 29)과 같은 요 금대 불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 중기 양식으로 보고 있는데, 어깨와 무릎 폭이 좁아 전체적인 시대 양식은 다르지만 가슴의 양감이나 내의를 묶은 띠매듭,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 기법에서는 사자암 상이 고려 중기까지의 전통 양식도 소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27. 옷주름 표현 ①청양 장곡사 약사불상(1346) ②문화재청 ③중대 사자암 상 ④불교문화재연구소, ⑤영주 흑석사 상(1458) ⑥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명대 건칠불상(명 1411) ⑦ MAT

남아 있는 조선 초기 불상은 대부분 15세기 중후반에 많이 제작되며, 이 시기에는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다.⁸⁶⁾ 그러나 여전히 고려의 전통적인 표현 요소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왼팔의 요형 주름과 오른쪽 어깨에 반달 모양으로 걸친 대의 자

85)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265, 2010. p.47; 심영신,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과 조선 전기 조각 양식의 전통과 모색」, 『문화재』52-4, 2019, pp.249~250.

86) 티베트계 명 양식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불상은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불, 조계사 석가불좌상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불상의 특징은 높은 육계와 정상계주, 왼쪽 옷깃의 삼각형 주름이나 우견편단 안으로 보이는 프릴 같은 주름 장식, 물방울 모양으로 접힌 무릎의 독특한 옷주름, 허리가 길어져 세장한 신체, 다리를 감싼 옷주름의 힘 있는 모습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 15세기 티베트계 명 양식 불상에 대해서는 강삼혜, 앞의 논문, pp.73~82 참조.

락의 접힌 장식, 중간계주와 내의를 묶은 띠매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 단아 양식⁸⁷⁾에서 많이 등장하며, 16세기 불상으로까지 이어진다.⁸⁸⁾ 그러나 사자암 상은 15세기 중 후반 조선 불상과 달리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이 그다지 간취되지 않는다. 가령 도 27처럼 왼쪽 옷깃에 보이는 삼각형 주름 접힘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명대 티베트 불상의 영향을 받은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불상(도 22-3)처럼 육계가 높거나 정상계주가 표현되지 않았다. 고려 14세기 불상의 경우는 육계 표시가 불분명한 채로 큼직하며,⁸⁹⁾ 대부분 사자암 상처럼 정상계주가 표현되지 않는다. 왼팔의 Ω형 주름의 경우도 후대로 갈수록 팔꿈치 뒤쪽으로 옮겨가는 특징이 있는데 조선 15세기 중후반 불상에 비하면 팔뚝 앞쪽으로 표현되어 있어 15세기 중후반의 조선시대 불상보다는 시기가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자암 상은 가슴에 양감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회화이지만 리움미술관 석가삼존도(도 28)의 본존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는 가슴의 양감이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조선 불상들의 경우 대부분 밋밋한 가슴이 표현되고 있어 사자암 상과는 구별된다.(도 23)

이처럼 사자암 상의 양식은 조선 15세기 중후반 명대 티베트계 명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과는 구별되며, 오히려 14세기 후반 고려 불상과 같이 육계가 낮고 넓으며, 정상계주를 표현하지 않았다. 대의 표현에서도 15세기 중후반 티베트계 명 양식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왼쪽 옷깃의 삼각형 주름 접힘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며 허리가 길어 세장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 고려 전통의 여운이 채 가지지 않은 느낌이다.

사자암 상은 특히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보이는 쌍계사 대웅전 및 실상사의 건칠아미타불좌상(도 25-1, 3)의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양어깨의 다소 어색하면서도 도식적으로 보이는 옷주름은 1400년 전후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추정된다. 사자암 상은 이처럼 여말선초 건칠불상과 유사한 면이 보이므로, 목조가 아니라 건칠불은 아닌지 재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도 28. 석가삼존십육나한도 부분, 고려 14세기, 비단 위에 채색, 93×46.2cm, 삼성미술관 리움 © LEEUM

이러한 도상과 양식 분석을 통해서 사자암 상은 복장 달라니가 간행된 1456년보다는 태상왕 이성계가 사자암을 중수한 1400년 무렵의 여말선초 불상으로 편년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와 조선의 양식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제작되었기에 14세기 고려 전통 불상의 양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새로운 조선의 양식이 움트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이전에 제작되어 15세기 중후반기 조선 불상들과는 차별되는 표현 요소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도 29) 15세기 중후반 티베트계 명대 불상의 영향을 받은 흑석사 불상 등과 비교해보면, 사자암 상에서 보이는 눈꼬리가 올라간 모습이나, 권인을 맺은 두 손의 크기가 몸에 비해 크고 힘 있으며, 낮은 무릎과 무릎 위에 표현된 세련되고 힘있는 옷주름 등은 조선 15세기 불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87) 문명대, 앞의 논문, 1983, pp.37-57; 동저, 앞 책, 2003, pp.206~242.

88) 강삼혜, 앞의 논문, p.55.

89) 화성 봉림사 아미타상(1362)에서 보이는 병모양 정상계주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명대, 『鳳林寺 목아미타불상』,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201.



금동아미타불좌상, 요대 11세기 초, 넬슨앳킨스미술관 ©nelson-atkins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불좌상, 고려 말 1350년경 ©심주완



건칠불좌상, 명 1411(영락9), 메트로폴리탄박물관 © MAT



금동불좌상, 고려 중기, 예산 천방사 ©문화재청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여말선초 1400년경 ©월정사박물관



목조아미타불좌상 1458, 영주 흑석사 ©대구박물관

도 29. 고려 중기 ~ 조선 전기 불상의 흐름

V. 맺음말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복장에서 나온 19세기 중수발원문(1894)으로 인해 조선 후기 불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 상을 연구 주제로 다루게 되었기에,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과 관계 및 통일신라와 여말선초 오대산 불교의 중요한 흐름 등을 폭넓게 살펴 제작 주제 및 배경, 제작 시기 등의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통일신라 705년(성덕왕4) 진여원이 창건되고, 50년 후 보질도(보천)태자의 유훈으로 자신의 암자를 화장사(화엄사)로 개창하여 비로자나삼존과 대장경을 봉안하고, 하원으로 문수갑사를 배치하여 도회소로 삼게 하면서 오대산 불교의 중심은 中臺가 되었다. 고려 초에도 국가의 비보사찰로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 나옹이 오대산에서 수행한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해 여말선초 오대산 불교는 또 한 번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조선 초인 1400년(정종2) 권근의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에는 나옹의 문도인 각운설악의 건의로 태상왕 이성계가 중대 사자암을 중창하고 낙성식에 참여한 내용이 전한다. 낙성 후 1년이 지나 이성계가 사자암에 전답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으로 남아 있는 문서의 실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자암 비로나자불상이 1400년 사자암이 중창되던 시기와 부합되는 여말선초의 도상과 양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자암 상은 14세기 후반 고려의 불상과 공유되는 표현 요소가 많은 반면 15세기 중후반 조선 불상에서 유행하는 티베트계 명대 양식의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1400년경 제작된 불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대 사자암 비로나자불상은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전개되는 조각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오대산 신앙의 실체와 공간성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사자암 비로나자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1456년(세조2) 복장 다라니 연구를 통해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 세워진 세존진신탑묘비 연대도 조선 15세기 중후반으로 시기를 비정해 볼 수 있었다. 비석에 새겨진 「불정심인」은 시각적으로 정골을 의미하며, 사자암 비로나자불상 복장 다라니의 「불정심인」(1456)과 유사하고 비신의 뒷면에는 탑인이 새겨져 있어, 이 무렵 불인과 더불어 탑인이 함께 등장하는 경향과 부합되어 15세기 중후반으로 제작 시기를 비정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續高僧傳』

『拭疣集』

『오대산사적』

국립춘천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도록, 2023.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불교중앙박물관, 『法, 소리없는 가르침』 개관1주년기념특별전, 2008.4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강삼해,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티베트계 명 양식 불상과의 비교 연구」, 『강좌미술사』 60, 2023.

강호선, 「조선전기 왕실원찰 見性庵의 조성과 기능」, 『서울학연구』59, 2015.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309, 2021.

김보민,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재웅, 이봉수, 「營建儀軌에 실린 木部材用語의 用例와 變遷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60, 2008.

김춘실, 「忠南 錦山郡 身安寺의 高麗末 塑造佛像-阿彌陀三尊과 毘盧舍那三佛-」, 『고고미술사론』, 1990

남권희,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小字 총지진언집 연구」, 『서지학연구』71, 2017.

남동신, 「여말선초기 나옹(懶翁) 현창운동」, 『한국사연구』139, 2007.

문명대, 「西來寺 소장 1459년 견성암 간(刊) 묘법연화경 영산회상도 판화 연구」, 『강좌美術史』 43, 2014.

문명대,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樣式) 佛像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중심으로」, 『고문화』22, 1983.

문명대, 「鳳林寺 목아미타불상」,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문상련(정각), 「불인과 탑인의 한국수용과 전개-부처님 현존과 감응의 희구-」, 『미술과 초자연, 벽사 길상 주술 영험』, (사) 동악미술사학회 2023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집, 2023.

문상련(정각), 김연미,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106, 2023.

문상련(정각), 김연미,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106, 2023.

문화재청,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록」, 2018.

박광연, 「한국 오대산신앙 관련 자료의 재검토」, 『사학연구』118, 2015.

손영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Ⅱ』, 문화재청, 2017.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22, 2008.

신소연,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서 2』, 국립중앙박물관, 2016.

- 심주완, 「동아시아 삼불상 도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엄기표, 「남원 勝蓮寺 마애 범자진언의 조성 시기와 의의」, 『선문화연구』18, 2015.
- 엄기표, 「寶珠形 唵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14, 2013.
- 염중섭(자현), 「『五臺山事蹟記』의 판본과 閱瀆의 慈藏傳記 자료 검토 - 새로 발견된 민지의 장전기 자료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46, 2016.
- 염중섭(자현), 퇴우 감수, 『오대산을 가다』, 조계종출판사, 2017.
- 염중섭, 「懶翁에게서 살펴지는 ‘五臺山佛教’의 영향-나옹의 五臺山行과 文殊華嚴을 중심으로」, 『은지논총』39, 2014.
- 염중섭, 「新羅五臺山の 정립에 있어서 文殊信仰과 華嚴」, 『정토학연구』29, 2018.
- 옥나영,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53, 2016.
- 유근자,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의 복장 기록 분석」, 『선문화연구』34, 2023.
-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발표집, 월정사성보박물관, 2023.
- 유대호, 「조선 전기 도갑사 불상군의 특징과 제작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0(미술사연구회, 2021).
- 이강근, 「오대산 中臺 寂滅寶宮 건축에 대한 연구」,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술총서』Ⅲ, 2002.
- 이기영, 「7, 8세기 新羅 및 日本의 佛國土思想-山嶽崇拜와 四方佛」, 『종교사연구』2, 1973.
- 이원석,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의 역사」, 『한국불교학』67, 2013.
- 장미란, 「신라 오대산신앙체계의 변용배경과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44, 2020
- 장충식, 「景泰七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考古美術』138·139, 1978.
- 정시한, 신대현 역, 『산중일기』, 혜안, 2005.
-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265, 2010.
- 심영신,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과 조선 전기 조각 양식의 전통과 모색」, 『문화재』52-4, 2019.
-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30, 2008.
-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100, 2021.
-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최연식, 「『삼국유사』 소재 오대산 관련 항목들의 서술 양상 비교」, 『서강인문논총』44, 2015.
- 최은령, 「전북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연구」, 『문물연구』23, 2013.
- 탁효정,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20, 2022.
- 한정호, 「경주 남산의 사리장엄구」,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어제와 오늘』 세계문화유산등재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2020.
- 한희숙, 「조선 초 廣平大君家の 佛教信行과 왕실불교」, 『한국사학보』 79, 2020.
- 허형욱, 「기록과 함께 보는 마곡사의 불교조각」,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국립중앙박물관, 2019.
- 황인규, 「여말선초 나옹문도의 오대산 중흥불사」, 『불교연구』36, 2012.
- 황인규, 「나옹과 오대산 복대」, 『불교학연구』62, 2020.

【Abstract】

Study of the Wooden Seated Vairocana at Saja-am Hermitage in Jungdae, Mt. Odaesan

Kang, Samhye
(Gyeongju National Museum)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of the Wooden Seated Vairocana at Saja-am Hermitage in Jungdae (“central terrace”), Mt. Odaesan (“five terrace mountain”). As such, it is comprehensive study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ja-am Hermitage and Jeongmyeolbogung, a sacred hall where the relics of the Buddha are enshrined, trends in Mt. Odaesan Buddhism, and Buddhist sculpture style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in order to determine who made the Vairocana statue and when, and the background to its production.

In 705 (four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gdeok), Jinyeowon (Sangwonsa Temple) was constructed in Unified Silla. Fifty years later, according to the dying wishes of Prince Bojildo (Bocheon), his hermitage, Bocheonam, was rebuilt and renamed Hwajangsa (Hwaeomsa) Temple, where a Vairocana triad and the Buddhist canon were enshrined. Munsugapsa Temple was constructed in the area below to serve as *dohoeso*, a gathering place or headquarters, and Jungdae became the center of Buddhism on Mt. Odaesan. Later, a revival of Mt. Odaesan Buddhism was led by the disciples of Master Naong, who carried out spiritual practice on the mountain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ccording to the “Reconstruction of Saja-am Hermitage,” written by Gwon Geu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t the suggestion of Gagun-seorak, a disciple of Naong, Yi Seong-gye (King Taejo), founding monarch of Joseon, had Saja-am rebuilt in 1400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ng) and attended the completion ceremony. By investigating the style and iconography of the Vairocana statue at Saja-am Hermitage, this paper shows that the statue was made when the hermitage was reconstructed in 1400. While the statue exhibits many expressive elements of Goryeo Buddhist sculptural style of the latter half of the fourteenth century, it shows no influence of the Tibetan style of the Chinese Ming dynasty that was popular during the mid- to latter half of the fifteenth century in Joseon, hence establishing that the statue was made around the fourteenth century. The Vairocana statue of Saja-am Hermitage, therefore, is a precious resource for studying development of the late Goryeo Buddhist sculptural style going into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is anticipated to shed light on more concrete aspects of Mt. Odaesan Buddhism and spatial expression thereof.

Moreover, examination of the dharani enshrined in the Saja-am Hermitage Vairocana statue in 1456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made it possible

to date the stele marking the stupa where the relics (sarira) of the Buddha are enshrined, which stands behind Jeongmyeolbogung, to the mid- to late fifteenth century. This dating is based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most profound heart of the Buddha” seal carved on the stele, which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enshrining the Buddha’s skull bones, its similarity with the “most profound heart of the Buddha” dharani seal (1456) enshrined in the Saja-am Vairocana statue, the pagoda seal carved on the back of the stele, and the tendency to use Buddha seals and pagoda seals together in the mid- to late- fifteenth century.

[key word]: Vairocana, Saja-am Hermitage in Jungdae, Mt. Odaesan, Jeongmyeolbogung, Jinyeowon, Sangwonsa Temple, Yi Seong-gye, Sejo, Naong, Bocheon, Mahāpratisarā dharani, Buddha seal, “Most profound heart of the Buddha” seal, Talisman, “Odaesan sajeok”